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동화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 유형 연구

-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연 주

2011년 8월

동화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 유형 연구

-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이 연 주

이연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1년 8월

심사 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A Study of the Characters' Personality Types
Shown in Fairy Tales : Based on 1st middle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

Supervising Professor : Ahn, Seong So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1. 8

Yi, Yon Joo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2011. 8

Thesis director, Ahn, Seong Soo,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Date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동화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 유형 연구

-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이 연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안 성 수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대상이 필요하며 그와 동일시되려는 욕구도 강하다. 동화는 모방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의 동일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매체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진실성과 순수성을 바탕으로 현실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꿈꾸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 동화 속의 인물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동일시의 모델이 된다.

따라서 동화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를 사는 청소년들의 성격 형성에 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동화는 역동적인 인성 발달의 단계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간접경험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구자가 2009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속 인물들의 성격유형을 탐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3가지 퍼스널리티 이론을 성격유형 분석의 이론적 도구로 활용하였다. 동물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이드적 성격, 사회와 개인의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욕망을 선택하는 에고적 성격, 그리고 양심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는 슈퍼에고적 성격을 준거로, 8편의 동화작품 속의 인물들의 성격 특성과 유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총 12명의 인물 중에서 에고적 성격이 7명, 슈퍼에고적 성격이 2명, 이드+에고적 성격이 1명, 에고+슈퍼에고적 성격이 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품 선정 과정에서 성격적 균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현행 1학년 중학교 국어교과서에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작품을 선정하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외에도 주인공의 성비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장편동화를 부분 게재한 점, 통시적 측면에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23종의 1학년 국어교과서 중에서 12개 교과서에 동화가 수록되지 않은 점도 확인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사실들은 중학교 2,3학년의 국어교과서에 수록할 동화작품의 선정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방법 및 범위	5
II. 동화의 문학교육적 가치와 의미	7
1. 동화의 장르적 특성	7
2. 동화의 문학교육적 가치	13
3. 동화의 기능과 청소년의 발달 단계	15
III. 동화의 인물과 성격 유형	20
1. 인물의 성격과 형성 구조	20
2. 인물의 행동 특성 분석	30
3. 인물의 성격 유형과 그 의미	71
가. 인물의 행동과 성격 유형의 관계	71
나. 인물의 유형적 의미	74
IV. 결론	80
<참고문헌>	82
<Abstract>	85

표 목차

<표 1> 교과서 수록 동화 현황	30
<표 2> 분석 대상 작품 인물	31
<표 3> 인물의 행동 특성과 성격 유형	72
<표 4> 프로이트의 성격 유형과 인물 분석 결과	75

그림 목차

<그림 1> 동화의 갈래 양상	13
<그림 2> ‘수만’의 행동 특성	33
<그림 3> ‘기수’의 행동 특성	35
<그림 4> ‘바우’의 행동 특성	38
<그림 5> ‘문기’의 행동 특성	41
<그림 6> ‘성태’의 행동 특성	45
<그림 7> ‘근태’의 행동 특성	48
<그림 8> ‘몽실’의 행동 특성	52
<그림 9> ‘명혜’의 행동 특성	56
<그림 10> ‘승권’의 행동 특성	60
<그림 11> ‘미르’의 행동 특성	64
<그림 12> ‘소희’의 행동 특성	67
<그림 13> ‘바우’의 행동 특성	69

I. 서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 속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성격유형을 탐구하는데 목표를 둔다. 일반적으로 작중인물의 성격적 특성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인물의 행동 특성과 성격 요인은 긴밀한 상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문화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급속한 기계화가 낳은 비인간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사회 상황은 그들의 인성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혼란을 야기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부정적 환경은 그들의 인성 발달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육체적 성장과 인지 발달 및 정서적인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문학작품과 문학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세계를 안정시켜 주고,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문학은 개연적인 미적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간의 바람직한 존재방식과 존재상황을 탐구하는 예술 양식이다. 문학교육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문학텍스트를 통해서 미의식과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풍부하게 길러줌으로써 건강한 인간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데 기여한다. 문학교육은 독자들에게 풍부한 독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식이나 정서 또는 인격에 긍정적 변화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¹⁾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이 읽는 동화작품 또한 중요한 문학교육의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동화는 동심(童心)으로 바라본 세계의 이야기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순수한 동심을 일깨우는 동화는 현실성과 환상성을 두 축으로 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바람직한 이상세계에 대한 비전을 조화롭게 안겨 준다. 이런 의미에서 동화교육은 현대 문명의 부정적 상황 속에서 가치관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현실세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힘과 미의식을 함양시켜 주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동화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함양시켜 준다.

1) 구인환 외 4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6, p.93.

그러므로 동화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동화 속의 인물은 현실과 이상의 조화로운 실현자로서 독자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이나 모방의 대상이 된다. 인물들의 사고와 행동은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동화는 학생들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계발시키고 다양한 인물의 성격과 삶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전인적 인격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도 기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화의 교육적 의의를 검토해 보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동화 속 인물들의 성격 유형을 프로이트(Freud)의 성격이론²⁾을 바탕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로 드러난 동화작품 속의 인물군상들이 유형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살펴보고 한다. 만일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동화 속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 유형들이 어떤 편향성이나 제한적 의미를 지닐 때, 조화로운 인간상의 모델 제시라는 문학교육의 이념 역시 편향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도의 규명을 위해서 이 연구는 동화 속 인물의 행동 특성과 성격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될 동화의 유형적 의미에 대해서도 제안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교육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 장르에 관한 연구, 인물 성격 유형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화의 교육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동화의 상위개념인 아동문학은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강소천은 아동문학은 “성인으로 성장 발전하며, 또 그렇게 되어 가는 길을 돕는 것이다”³⁾며 아동문학의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남숙⁴⁾은 아동문학의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그 본질과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아

2) 프로이트가 생각한 총체적 퍼스낼리티(性格)는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이드(id), 에고(ego) 및 슈퍼에고(superego)라 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 부분은 통일적이고도 조화로운 구성을 이룬다. 이들의 상호협동이 잘 이루어짐으로서 인간은 환경과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해 나갈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만일 인격을 이루는 세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매사에 능률도 발휘하지 못한다.(S.프로이트 · C.S.홀 · R.오스본, 『프로이트 심리학 해설』, 설명환 역, 선영사, 1995, p.111.)

3) 강소천, 『아동문학』, 배영사, 1962, p.11.

4) 조남숙, 「아동문학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동문학을 읽는 독자의 범위 등을 논의하였다. 이재철은 『아동문학의 이론』에서 ‘훌륭한 아동문학이란 예술성과 교육성의 조화’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동문학 전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아동문학과 성장 관계, 아동문학과 인격 형성의 관계,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포괄적인 연구가 장혜순⁵⁾, 임원재⁶⁾ 등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동화의 교육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는 아동문학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어린이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최경희⁷⁾는 동화의 교육적 가치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동화교육의 지향점뿐만 아니라, 적용상의 방법적인 측면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동화 분석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장르 체계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동화의 효용성을 논의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정선⁸⁾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연구」에서 동화가 청소년과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동화의 수용 대상을 청소년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지만, 이론적 근거가 허약한 한계점을 보인다. 김근재⁹⁾는 동화의 교육적 가치와 기능에 대해 다양한 연구자들의 논의 결과를 나열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아동문학과 동화의 교육적 효용성에 관한 의의 및 필요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었지만, 대부분 전래동화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동화도 시대와 역사환경에 따라 발전하는 새로운 인간상의 탐색에 무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석사학위 논문인데 반해, 최경희의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동화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한 측면이 돋보인다.

동화 장르에 관한 연구 또한 그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동화 속 인물 성격 유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중학교 23종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작품을 선별 작업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교사용 지도서에 따라 장르를 분류할 때, ‘동화’로 명명된 것은 몇 편에 불과하다. 옛이야기, 성장소설, 청소년소설 등으로 분류된 것들을 동화의 한 장르로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아동문학 장르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보편적인 장르 체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화 장르에 관한 연구 또한 많지 않다. 한국의 아동문학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5) 장혜순, 『아동문학론』, 창지사, 1997.

6) 임원재, 『아동문학 교육론』, 신원문화사, 2000, p.81.

7) 최경희, 「동화의 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8) 김정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9) 김근재, 「국민학교 동화 교재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지 않은 데다 이를 연구하는 전문 비평가나 연구자들도 적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쓰는 용어가 서로 달라 개념상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김상옥¹⁰⁾은 아동문학의 장르 류로 노래, 이야기, 놀이라는 삼분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동화가 아동문학의 주도적인 장르임을 강조하였다. 아동문학의 이야기 장르를 동화라는 총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며 동화를 현실주의 동화, 판타지 동화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성장소설, 소년소설, 청소년소설 등의 소설류를 아동문학 편입시켜 장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동문학의 이야기 장르를 동화로 총칭하는데 그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여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장정희¹¹⁾는 방정환의 아동문학을 장르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그는 시, 소설, 극, 교술의 4분법에 따라 하위 장르를 세분화하였는데, 이는 1920년대 아동문학의 초창기 장르 체계와 일치한다. 박춘식¹²⁾은, 아동문학의 서정 장르에는 동요와 동시를, 서사장르로는 동화와 소년소설, 아동산문을, 그리고 극 장르에는 아동극과 아동 시나리오를, 문학비평에는 아동문학 평론을, 그밖에 그림책까지 아동문학 장르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동문학 장르를 여러 갈래로 세분하는데 의의를 두었을 뿐, 장르 성격에 관한 깊은 고찰은 엿보이지 않는다.

김영실¹³⁾은 아동문학 장르를 이야기 그림류, 시가류(동요, 동시, 소년소녀시), 소설류(동화, 아동소설, 소년소녀소설), 희곡류(동극, 아동시나리오), 산문류(수필, 일기, 기행문 등)로 나누어 각 장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문학의 장르 체계를 너무 복잡하게 구분하였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지호¹⁴⁾는 환상과 동화를 합쳐 ‘환상동화’라 명하고 동화의 하위 장르로 현실동화와 대립되는 환상동화의 장르적 성격을 연구하였다. 그는 아동문학의 하위 장르인 환상동화를 새롭게 명명함으로써 장르 성격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환상동화와 더불어 동화 장르를 통합하여 체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원종찬¹⁵⁾은 동아시아 각국의 각각 다른 동화 개념의 연원을 연구하여 한국 동화 장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화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과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점을 들면서 생활동화를 아동소설에 넣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에

10) 김상옥, 「아동문학의 장르와 용어」,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겨울학술대회 발표문, 2009.

11) 장정희, 「소과 방정환의 장르 구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2) 박춘식, 『한국 아동문학의 장르에 관한 연구』, 집문당, 1983.

13) 김영실, 「아동문학의 장르와 특수성」, 『진주교육대학논문집』 제36집, 1992.

14) 이지호, 「환상동화의 장르적 성격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8집, 2004.

15) 원종찬, 「한국 동화 장르에 관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30호, 2006.

대한 연구보다는 일본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필자의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화 속 인물의 성격 유형에 관한 논문들은 미미한 실정이다. 동화의 인물 성격 유형에 관한 것으로는 류근원¹⁶⁾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 실린 동화와 소설을 주제와 인물 유형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평면적 인물 일변도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개성적인 인물 창조가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임연수¹⁷⁾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동화 속의 등장인물을 융(Jung)의 분석심리학의 용어인 외적 인격의 페르조나(persona)와 그 상대개념인 내적 인격의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 본연의 '나'인 자기(self) 등의 개념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화 속 인물 분석을 위해 제시한 이론과 논리를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 외에도 조미연¹⁸⁾은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의 인물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인물 유형을 인간상과 연결시키는 데는 미흡함을 보였다.

따라서 동화의 교육적 효용성을 강조한 연구들 대부분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소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화 속 인물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도 많지 않은데다 그 대상 또한 '초등학생'에 한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된다. 우선 II장에서는 동화의 문학교육적 의미를 탐색한다. '동화'의 정의와 특징, 장르 등을 동화 장르의 미적 특성의 방향에서 살펴보고, 동화가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동화 장르의 교육적 가치와 동화 속 인물의 심리적 행동 특성의 이론적 배경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본격적인 인물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이트(S. Freud)의 성격 발달 이론을 구조주의의 분석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절충하여 기본적인 텍스트 분석의 방법론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동화 속 인물이 작품 속 중요 사건에 반응하는 행동특성과 대화 등을 프로이트의 성격 유형인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나누어 보고,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동화에 실린 인물의 성격 유형을 표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림 표상형식과 설명의 방식을 절충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이 갖는 장점은 각 인물이 사

16) 류근원, 「초등학교 문학교재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7) 임연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화의 인물 분석」,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8) 조미연, 「초등학교 동화 교재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근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행동 특성을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따라 추적하면서 그 변화 추이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지배적인 성향으로 묶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럴 경우, 작중 인물이 보여주는 성격 발현의 성향과 결과를 과정적으로 분석하여 종합하여 수렴하는 특성을 보임으로서, 지나친 일반화와 도식성을 피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작중인물의 성격분석 결과는 언어를 통한 설명과 그림을 통한 설명이라는 두 가지 표상전략을 혼용함으로써 그동안 문학연구가 언어적 설명에만 의존해왔던 한계성을 보완하는 효과도 누릴 것으로 본다. 인간의 모든 감각은 그 나름의 어떤 특정 정보에 잘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언어로 표상될 수 없는 문학적 의미나 감각은 언어표상만을 가지는 효과적인 전달이 불가능하다.¹⁹⁾ 이것은 단순한 언어 표상형식에만 의존해 온 문학연구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각기관을 동원한 표상형식²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이다.

텍스트의 핵심 사건과 행동을 따라가며 수행하는 작중인물의 성격발현 과정의 탐색을 위해서는 텍스트를 분절하여 요약하는 것이 필수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건과 행동을 최소사건 단위로 분절하고 그 의미를 성격 특성 요인과 연결시켜 요약한 뒤, 유사 단락들을 묶어 시퀀스로 명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프로이트의 성격이론에 대입하여 과정별 변모양상과 지배적인 성향을 추론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작중인물의 행동특성은 그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판단하는 심리적 동기나 근거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 중에서 동화작품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를 시작할 무렵, 2009 개정 교육과정에 2, 3학년은 적용되지 않았기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로만 한정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전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작품을 대상으로 포괄시키지 못하고 1학년 텍스트에 한정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동화작품의 선별을 위해서는 현재 학계에 널리 퍼져 있는 개념과 장르 체계를 따랐다. 그러므로 소년소설과 성장소설 등은 동화의 이야기 장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 연구에 포함시켰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중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 23종 1학년 『국어』 1~2학기에 수록된 창작동화 작품으로 한정한다.

19) 안성수, 「현대소설의 교수방법과 표상형식-〈그림지도법〉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백록논총 제1집, 1999, p.22.

20) 안성수는 위 논문에서 표상형식을 활용한 소설이론 교육에 대한 효용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그림 표상법은 복잡하고 난해한 소설의 이론과 작품을 시각적으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둘째, 그림 표상법은 소설교육을 보다 재미있게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한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 도와주는 효과를 제공한다. 셋째, 그림 표상법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줄 수 있다. 넷째, 그림 표상법은 시각적인 표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로 설명한 것보다 공간성과 구체성을 띤다. 다섯째, 그림 표상법은 소설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흥미로운 학습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여섯째, 그림 표상법은 소설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과 연상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수용자의 문학 인식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일곱째, 그림 표상법은 언어와 그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풍부한 의미전달이 가능하다.

II. 동화의 문학교육적 가치와 의미

일반적으로 동화는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성인 문학과 다른 교육성과 상징성, 예술성 등을 함유하여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동화는 어느 한 계층만 한정지어 독자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감동적인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화작품에 나타난 인물 성격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동화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장르 고찰을 통하여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작품의 선별 근거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발달단계와의 연관성 차원에서 동화가 갖는 교육적 가치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화의 장르적 특성

동화는 본래 메르헨(Märchen · fairy tale)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다. 메르헨은 옛이야기의 형식으로서 그림(Grimm)형제나 안데르센을 고향으로 하는 상징적 문학 형식²¹⁾을 가리킨다.

이재철은 “동화는 옛날 얘기·민담·신화·전설 등과 같은 설화의 종류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재구성·개작하거나 또는 그러한 특징을 동화라는 형태 속에 포용한 것”²²⁾이라고 주장한다. 이원수는 동화를 보다 폭넓게 두 가지로 범주로 정의한다. 하나는 아동을 독자로 한 옛날 이야기(전래동화)나 아동 생활에서 취재되고 아동의 심리에 부합하는 콩트, 소품, 수필-나아가서는 아동소설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장화한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전래동화 중의 일부를 포함하는 스토리를 가진 다분히 소설 형식의 산문으로서 현실적인 세태나 생활 묘사에 국한하지 않고 환상적·비현실적인 가공적 이야기를 일컫는 것²³⁾이라 말한다. 이 중에서 이원수는 후자의 개념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동화란 동심을 바탕으로 서정성과 상징성, 초월성 등을 함유하여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원종찬은 동화의 용어사용의 기원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동화라는 말은 우리 전래 민담을 아이들한테 맞게 고쳐서 소개하거나 외국의 어린이 대표 명작을 번안해서 소개할 때 처음 붙인 말이다.”²⁴⁾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산문의 창작물이 나오면서 ‘동화’라고 하

21) 이오덕, 『어린이를 살리는 문학』, 청년사, 2008, p.144.

22)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1983, p.142.

23)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한길사, 2001, p.246.

면 당연히 ‘창작동화’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동화의 기원에서 보듯이 그것은 그 독자층을 어린이로 한정하지 않는다.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르적 특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못하고 때로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른들의 정서적 쉼터가 되기도 한다. 다만, 현실 초월적이며 공상적인 동심을 많이 담고 있어서 아동용 주 독자로 삼고 있다는 느낌을 줄 뿐이다. 동화가 독립된 하나의 문학형식으로서, 오늘날까지 존존하는 것도 단순한 옛날이야기나 민담 등과는 달리 이러한 특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그러므로 동화는 어린이를 주 독자로 삼으면서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문학 장르가 된다. 동화가 형상화하고자 하는 동심(童心)은 어린이가 지니고 있는 마음의 속성으로서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가 없으며, 사심(邪心)이 없는 순진무구한 마음의 세계이다. 이러한 동심의 세계를 동화의 특성과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화는 환상의 세계를 제2의 현실처럼 보여준다. 수용자의 관점에서 동화의 환상성과 소설의 환상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어린이들이 환상세계를 수용하는 방식은 성인들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성인 문학의 독자들이 환상의 세계를 자연과 초자연을 뛰어넘는 상상의 공간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동문학 독자인 어린이들은 그것을 제2의 현실이자 자신들의 실제 세계로 수용한다. 어린이들에게 초현실은 현실과 대립된 것이거나 현실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들의 현실이 된다. 초현실의 법칙이 아동들에게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동화에서 환상은 일반 소설문학의 환상과는 달리 하나의 선택적인 기법이 아니라 중요한 창작원리로 기능한다.²⁶⁾

소설에서의 환상이 독자의 흥미를 제고시키고 바람직한 인간상과 세계관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화에서의 환상은 동심과 결합되어 환상의 세계를 현실로 가져오으로써 하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동화는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며 왕성한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물론, 일상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생활동화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어른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환상적인 발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깨워주는 기법이 활용된다. 아이들은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동심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둘째, 동화는 자연과의 교감이나 소통을 시도한다. 동화란 용어가 메르헨에서 왔고 그 뜻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옛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면, 동화의 근원은 일종의 설화문학적 요소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옛이야기로 대표되는 설화문학은 인간들의 가장 원초적이

24) 원종찬, 『동화와 어린이』, 창작과 비평사, 2004, pp.73~74.

25) 이재철, 앞의 책, p.143.

26) 김자연, 『한국 동화문학 연구, 한국 동화의 환상성 연구-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서문당, 2000, p.49.

고 본질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설화 속에서는 인간을 자연과 분리시켜 이원론적으로 다루지 않고 신, 동물, 사람, 나무 등이 자연과 하나 되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은 이러한 원초적인 이야기 구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특별한 경계를 짓지 않는다.

마리아 니콜라예바는 ‘아동이 동물과 함께 가까이 살며, 동물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순진무구한 아이디어에 주어지는 특권’²⁷⁾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실제로 동물의 언어를 사용하지는 못해도 동물들과 특별한 교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의식 세계에 자연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인격화할 수 있는 동일한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자연과 소통하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연의 원초성과 전원성,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면서 자신도 그것과 하나가 된다. 세상과의 심각한 갈등 과정을 거쳐 진실에 도달하는 소설과는 달리 동화는 자연의 순리 구조 속에 어린 독자들의 순진무구한 심미세계를 통합시킨다. 어린 독자들이 자연과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며 소통하는 것은 동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셋째, 동화는 풍부한 상상의 세계를 간결한 문장에 실어 들려준다. 소설은 묘사방식을 중심으로 서술하기에 사건 전개가 느린 반면, 동화는 스토리 위주로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빠른 템포를 보여준다. 직접적으로 진술하기를 즐기는 어린이의 화법적 특성과 아동의 심리적 요인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동화는 주로 단순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한다. 주어와 술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되, 은유와 복합문장이 섞인 길고 지루한 만연체보다는 쉬우면서도 짧고 단순한 문장을 즐겨 쓴다. 이로 인해, 동화를 어린이만의 쉬운 문학으로 여기지만 동화의 어휘 속에는 풍부한 상상력이 내포되어 있다. 작가의 머리에 아무리 신나고 굉장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도 어린이의 언어와 화법으로 서술되지 않으면 동화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작가는 어린이들의 대화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언어와 투쟁을 벌여야만 한다고도 주장한다.²⁸⁾ 단어와 이미지가 하나로 결합되어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어른들과 달리, 어린이들에게는 하나하나의 단어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동화를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도 간결한 문장 속에 풍요로운 상상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동화는 감정이입이 용이한 장르이다. 그것은 어린이의 순수한 동심에 호소하는 이야기 구조와 심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교적 감정이입이 수월하고 효과가 큰 것이 또 하나의 특성이다. 이야기와 사건의 구조 자체가 동심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독자들이 주어진 세계를 실제 현실로 받아들이는 직선적인 심미구조적 특성 때문에 특유의 감정이입 작용이 잘 발생한다.

27) 마리아 니콜라예바,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조희숙 외 4인 역, 교문사, 2009, p.178.

28) 황선미, 「동화 창작 방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59.

이러한 ‘동화’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동화’의 선별작업은 쉽지 않다. 현대의 동화가 이미 ‘소년소설’, ‘성장소설’ 등의 다양한 작품들을 아동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을 창작동화로 간주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동화에 대한 장르 차원의 규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동문학 장르는 서정-동시(노래), 서사-동화(이야기), 극-동극(놀이)의 3분법과 교술-동수필이 포함되는 4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아동문학의 서사 장르를 동화라 할 때, 동화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논자들의 분류가 다양하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아동문학의 서사 장르를 ‘동화’라는 총칭할 때, 그 하위 장르에는 ‘생활동화’와 ‘공상동화’로 구분한 이오덕의 일원론과 동화와 소년소설로 나누어 나란히 설정한 이원수를 대표로 한 이원론이 있다. 이 논자들의 뒤를 이어 일원론에는 김상욱이 이원론에는 원종찬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논자들이 서사의 하위 장르인 동화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는 동화의 정의와 관련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화는 설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상징적 의미를 함유한 아동문학 작품을 가리킨다. 이 때, 이오덕은 동화의 이야기의 범주를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서사 장르 전체로 본 반면, 이원수는 생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소년)소설로 본 반면 가공적인 스토리나 환상적인 이야기만을 동화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문학의 서사 장르의 하위 유형으로 동화와 소년소설을 나란히 두고 있는 이원수와는 달리, 이오덕은 서사 장르를 ‘동화’로 총칭하고 그 하위 유형 속에 생활동화와 공상동화를 놓았다. 이를테면 환상적인 공상동화와 일상세계를 그리고 있는 소년소설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오덕은 “서양에서 말하는 판타지 동화를 우리 공상동화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²⁹⁾고 지적하면서, 산문시에 가까운 동화와 완전한 산문예술인 소설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현대 동화가 발상은 동화적이면서도 수법은 거의 소설적인 방식으로 창작되기 때문이다. 이원수가 특수한 세계를 그릴 경우에도 ‘일상생활과 같은 원리’라며 공상과 현실을 철저히 구분한 것과 달리, 이오덕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그리는 방식으로³⁰⁾ 공상과 현실을 접목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오덕은 동화와 소년소설의 경계의 모호성을 들어 동화와 소년소설을 묶어 동화라는 단일한 명칭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종찬은 "이오덕은 생활동화란 개념을 통하여 해방 후 동심주의 문학에 묻혀 실종된 리얼리즘 문학정신을 되살리려는 가장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³¹⁾면서도 한국의 시대

29) 이오덕, 『어린이를 살리는 문학』, 청년사, 2008, p.144.

30) 이오덕, 앞의 책, p.143.

상황에 따라 발생한 공상과 현실의 접목 측면에서 이오덕의 장르론을 비판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근대 동화선집에 실린 작품들을 살펴보다라도 두 나라를 대표하는 작품들의 경향은 눈에 띄는 차이를 드러낸다. 일본은 초자연적이고 공상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동화와 소설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은 공상 이야기의 발달이 역사적으로 제약되었던 한국 아동문학의 현실주의적 성격과 관련되는 문제다.³²⁾

리얼리즘적 아동문학의 성격이 강했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공상적인 이야기의 발달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공상동화를 토대가 미약하고 그 양식이 우리에게 낯설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차적인 문제로 밀쳐두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원종찬은 공상동화의 본질 회복을 주장하며 리얼리즘 문학정신이 바탕에 깔려있는 동화는 소년소설로 옮기고 공상성과 상징성을 지닌 이야기만을 동화로 인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상욱은 동화와 소년소설의 분명한 분리를 강조한 원종찬의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소설의 현실성을 위해 동화의 현실성을 희석시키거나 소홀하게 다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분류법은 아동소설의 소설화 경향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동화의 비현실성을 온존시킬 여지 또한 나란히 존재한다. 이는 자칫 동화의 장르적 본질, 아동문학의 장르적 특성을 모호하게 흐려버릴 개연성 또한 없지 않다.³³⁾

김상욱은 동화가 공상성만을 강조하고 소설은 리얼리즘 요소만을 강조한다면 어느 하나는 소홀해지거나 소멸된다는 것이다. 또한, 저학년의 아이들만 읽는 것이 동화이고 학년이 높을수록 소설을 읽어야 한다면 이태준, 현덕, 권정생 등에 의해 확립된 유년동화는 앞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아동문학의 소설화 경향과 동화의 비현실성의 문제점은 동화를 한층 더 왜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원종찬은 마리아 니콜라예바의 입장을 들어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논의 즉, 전통적인 서술 구조의 파괴, 시간과 공간의 얽히고설킨 사용, 증가하는 상호텍스트성, 텍스트와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에 제기되는 의문 같은 현상’ 등의 진전된 논의가 아동문학에도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욱은 “중심을 세우지도 않고 경계를 확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아동문학은 문학이 아니라, 아동문학이다.”며 원종찬의 주장

31) 원종찬, 「한국 동화 장르에 관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30호, 2006, p.347.

32) 원종찬, 앞의 논문, p.347.

33) 김상욱, 앞의 논문, p.23.

을 일축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고찰해 볼 때, 한국에서는 동화가 아직 장르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동화와 소설을 하나로 볼 것이냐, 각기 다른 독립체로 볼 것이냐가 관건임을 알 수 있었다. 동화가 갖고 있는 환상적이고 공상적 요소를 인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현실적 요소가 가미된 부분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조된 서사적인 문학적 이야기들(동화와 소설)을 하나로 묶어 동화로 보는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동화의 장르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 속에서 현실성과 환상성은 공존한다. 기본적으로 동화는 현실성과 환상성(공상성)이라는 아동의 심미세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 두 세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동화의 미적 본질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동화에서 현실성과 환상성은 각기 아동들의 현실세계와 이상세계를 지시하고, 그러한 두 세계의 통합 속에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아동문학의 본성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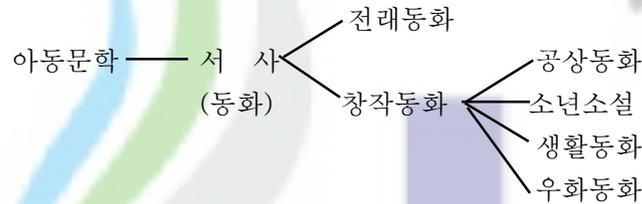
동화의 독자는 동화 속의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삶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기회를 갖는다. 동화 속 인물은 동심으로 바라보는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독자는 그것을 자신의 현실세계로 가져와서 공상과 현실을 긍정적으로 접목시킨다. 그러므로, 현실적 요소와 공상적 요소를 서로 떼어놓는 이원론의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환상의 세계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현실 또한 환상을 지향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래와 인간상을 꿈꿀 수 있는 까닭이다.

둘째, 동화는 문학 그 자체의 존재 목적도 지니고 있지만, 아동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아동문학의 일반적인 주체는 '아동'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독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장기의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이오덕은 동심(童心)을 어디까지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³⁴⁾으로 정의한다. 김상욱이 '아동문학은 문학이 아니라 아동문학이다'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화가 어른이 바라는 아이들의 세계가 아니라, 어린이의 입장에서 동화를 바라보고 장르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아동문학에서 필요함을 뜻한다. 이러한 주장은 동화 장르를 '문학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을 피하고 중심을 의연히 세우고 경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김상욱의 의견과도 통한다. 따라서 이오덕이 내세운 것처럼 동심을 가진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어린이가 자신의 이야기 문학으로 선언한 것'을 동화의 중심에 놓는다면, 아동문학의 서사 장르는 '동화'로 총칭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도표로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34) 이오덕, 앞의 책, p.137.

<그림 1> 동화의 갈래 양상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문학의 하위 장르인 동화는 서사적 이야기로 조직되는데 이에는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로 나뉜다. 그리고 창작동화는 공상동화와 소년소설, 생활동화, 우화동화 등으로 나누었다. 이때, 우화는 주로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인간성을 풍자하거나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다. 전래동화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이 어린이들의 문학으로 개작되어 전해지는 이야기를 총칭한다. 이러한 전래동화는 동화의 한 갈래임에 분명하지만, 여기서는 창작동화에 국한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이는 이 연구의 목적이 동화작품 속의 인물 유형을 탐구하는데 있으나, 지나치게 교훈성 위주의 이야기로 재창조되거나 개작된 옛 이야기는 문학성이 허약하고 상투적인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사성에 바탕을 둔 공상동화, 소년소설, 생활동화, 우화동화 만을 창작동화의 범주에 넣고 살펴보려고 한다.

이제 앞서 언급한 동화의 정체성과 장르적 특성을 바탕으로 동화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살펴볼 단계이다.

2. 동화의 문학교육적 가치

문학교육적 차원에서 동화는 개인의 바람직한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가치를 둔다. 작품을 통한 독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 그리고 모국어에 대한 심미의식 고취와 전인적 인격의 함양은 문학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다. 청소년들은 훌륭한 동화작품의 독서를 통하여 깊은 감동을 받고 풍부한 문학적 체험을 향수하게 된다. 또한, 동화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경험의 확대를 이끌어 주고, 나아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미래의 삶을 꿈꾸게 해준다는 점에서 실용적 기능을 함유한다.

동화의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최경희는 언어 교육적·지적 향상, 윤리적·사회생활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언어 교육적·지적 향상 면은 사고력 신장, 창의력 개발, 상상

의 세계가 현실로 이어지는 지식 전달적 측면에서, 윤리적·사회생활 면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둔다.³⁵⁾

한편, 김근재는 동화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동화의 총체적 가치를 서술하고 있다.

첫째, 동화는 언어 능력을 발달시킨다.

둘째, 동화는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 준다.

셋째, 동화는 깊은 감동과 올바른 도덕적, 사회적 가치관을 확립시켜 준다.

넷째, 풍부한 정서로 심미적 감상력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상상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여섯째, 사상성이 미적 정서 속에 잘 형상화되어 있는 동화를 통한 바른 인생관을 형성하게 도와준다.³⁶⁾

이처럼 동화는 주 독자가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바람직한 성격과 습관의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동화는 상상력과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 비고츠키는 “인간의 행위와 발달과정에서 상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⁷⁾고 주장하면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상상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화가 주는 교육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관습적 사고를 조절하고, 그것을 더 나은 차원과 맥락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 상상력을 통한 학습은 학습되는 내용을 재평가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상상력을 통한 교육은 학습자의 이성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³⁸⁾

35) 최경희, 앞의 논문, pp.16~21.

36) 김근재, 앞의 논문, p.17.

37) “상상은 인간의 행위와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상은 인간 경험의 확대 수단이 된다. 이 말은 인간은 자기가 보지 않았던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자신의 직접적이고 개인적 경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타인의 이야기나 기술에 의해서 생각해 묘사할 수 있다. 인간은 상상력의 도움을 빌려 자기 자신 경험의 범위와 좁은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의 역사적·사회적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그 한계를 훨씬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에서 상상은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다.”(비고츠키, 『아동의 상상력과 창조』, 창지사, 1999, p.32.)

38) 허승희·박동섭·강승희, 『아동의 상상력 발달』, 학지사, 1999, pp.36~42.

인간은 현실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으나, 상상세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간은 상상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고 수많은 현상들을 사회 속에서 재구성해 하면서 살아간다. 이 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상이 모두 가치 있는 체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체험에 바탕을 둔 언어적 상상이 중요한 문제가 되며, 언어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상적 체험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상상적 대상이 언어로 표상될 수 있는 것을 언어적 상상이라고 할 때, 문학적 상상은 언어로 표상된 대상에 대해 정서적 공명을 하게 됨으로써 상상적 체험을 완성시킬 수 있다.³⁹⁾ 작가는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독자는 작가가 구축한 세계를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공감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상상력 발달의 절정기를 맞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을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동화 체험은 인성과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동화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동화와 청소년의 발달과정과 그 상관성을 동화의 기능과 연계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3. 동화의 기능과 청소년의 발달 단계

가. 동화의 교육적 기능

동화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미적 감동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과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이러한 동화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최경희는 “동화문학은 동심에 바탕을 두어 미적인 쾌락을 주면서, 그 미적 감동 속에서 교시적·교육적 기능을 다해야 하며, 아동에게 보다 높은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암시해 주어야 한다”⁴⁰⁾고 말한다. 김근재는 동화가 정서적 기능과 지적 기능, 언어 교육적 기능, 윤리적 기능⁴¹⁾등을 길러 준다고 주장했고, 김정선은 ① 조기 경험을 통한 지식의 확대와 다양한 현상과 개념의 명료화, ② 지식과 사고의 확산을 통한, 인지 능력의 촉진, ③ 심미감과 창의적 표현 욕구의 개발, ④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의 촉진, ⑤ 독서 능력과 학습 능력의 향상 및 다양한 정서의 개발, ⑥ 자신감과 성취감의 체험 및 성장 과정의 심리적 갈등과 문제 해결, ⑦ 인간에 대한 탐색을 통한 삶의

39) 인혜리·이성은,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학 활동이 아동의 상상 기능 및 성향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연구』 제8권 2호, 2004, p.294.

40) 최경희, 앞의 논문, p.16.

41) 김근재, 앞의 논문, p.18.

지혜와 의미 발견⁴²⁾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동화의 교육적 기능은 크게 정서적 기능과 지적 기능, 예술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서적 기능은 동화를 통해 부모의 사랑과 친구와의 우정, 이웃과의 관계 등을 겪고 그것이 해결되는 시점에서 감동과 감정이입 등의 방식으로 안정을 찾게 도와준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은 인격의 성숙을 가져다주고 개인과 사회, 국가에 기여하게 이끌어 준다. 둘째, 지적 기능은 동화를 통해 논리적인 판단력과 비판의식을 생성시켜 주고, 문학적 소양을 향상시켜 준다. 셋째, 동화의 예술적 기능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을 사랑의 관계로 포용하게 해준다. 인간이 접하는 문명 외에 자연이 주는 예술적 감흥에서 오는 체험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준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미적 조화의 대상으로서 수용될 때 어린 독자들의 심미세계는 낙관적인 세계관을 수용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동화는 정서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적·도덕적·예술성 등을 풍부하게 포함한다. 이것은 전인적인 인격체를 길러내야 하는 학교 교육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화의 활용은 바람직한 인간상의 형성에도 기여하게 되리라 믿는다.

나. 청소년의 발달 단계

동화의 주 독자층을 ‘아동’⁴³⁾이라 할 때, 아동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유아와 초등학생을 일컫는 말이다. ‘청소년’⁴⁴⁾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심은 유아와 초등학생에게만 있지 않다. 동심은 특정 인물이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적인 순수함이다.⁴⁵⁾ 다만, 순수한 동심은 성장발달 과정에 따라 변형 과정을 겪을 뿐, 도덕적 완성을 이루려는 본질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동화는 청소년들에게도 읽혀야 할 가치 있는 문학적 텍스트가 된다.

동심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동화의 미적 기능은 독자의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 독자의 욕구는 육체적·정신적 성장발달 단계와 상관성을 지닌다. 독자가 어떤 성장 단계를 밟고 있느냐에 따라 흥미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아동문학은 독자인 아동의 정신적 이해능력과 신체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이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42) 김정선, 앞의 논문, p.27.

43)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문학의 대상은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하는 5, 6~14세, 15세(중학교 7~9학년까지 해당)까지로 정하고 있다. 반면에 서구에서 아동은 5, 6~18세까지(대학교 1학년)로 아동문학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김경연, 「청소년의 이해」, 『문학과 교육』 제17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p.10.)

44) 사회적인 통념상 ‘청소년’이라고 할 때는 대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을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의 학교 제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은 학제상으로 보면 중, 고등학생들을 말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심리학』, 서원, 1997, p.9.)

45) 박종우, 「톨스토이 3부작 『어린시절』, 『소년시절』, 『청년시절』에 나타난 동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6~7.

로 아직도 미분화·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주는 것인 만큼 읽어서 그들의 심신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학이어야 된다.⁴⁶⁾ 이러한 사실은 동화의 독자층이 유아와 초등학생에게 한정되지 않고, 성장발달의 측면에서 청소년도 해당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 좋은 동화는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청소년을 독자층으로 포괄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동화의 기능과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인간의 발달에는 신체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 사회적 발달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신체적 발달의 측면에서 생물학적 이론을 펼친 홀(Hall)은 아동⁴⁷⁾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 발달의 계열과 시기를 조사하고 측정하는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⁴⁸⁾하여 재현이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단계를 5단계로 설명하였다. 즉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발달을 재현하는 유아기(0~4세), 아동의 술래잡기나 장난감 총 놀이 등 과거 인류의 동굴 생활과 수렵활동을 재현하는 아동기(5~7세), 야만적인 특성으로 야영시대의 삶을 재현하며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읽고, 쓰고, 말하는 기술을 획득하는 청소년 전기(8~14세), 급진적이고 변화가 많아서 안정적이지 못한 청소년 후기(14~25세), 그리고 인류의 문명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성인기⁴⁹⁾로 나누었다.

피아제(Piaget)는 친구, 성인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적 능력은 차이가 나며, 유전적인 요인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테면, 인지발달 단계를 4단계⁵⁰⁾로 구분하여 인지보다는 감각적인 능력을 보이는 감각 운동기(0~2세), 언어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상징적 사고의 발달과 개념 획득 능력에서 빠른 속도를 보이는 전조작기(2~7세),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하며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여 관계성을 이해하고 추론을 토대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 조작기(7~11세), 그리고 문제 해결에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을 모두 이용하면서,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고,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형식적 조작기(11세 이후)가 그것이다.

프로이트(S. Freud)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심리-성적 에너지가 집중되어지는 신체 부위에 따라 5단계⁵¹⁾로 구분하였다. 1단계인 구강기(0~1세)는 성적인 에너지가 입 주변에 집중되는 시기로서 손가락이나 젖꼭지를 빠는 행동을 통해 욕구를 충족한다. 2단계는 항문기

46) 이재철, 앞의 책, p.10.

47) 교육심리학의 발달 개념을 설명할 때 아동발달, 인간발달, 생애발달, 청년발달 등으로 나뉜다. 이때,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은 태아부터 사춘기까지의 인간 성장의 모든 면을 이해하려는 연구 분야로 정의하고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모든 변화를 이해하려는 학제적 연구 분야로 설명하고 있다. 홀이 말하는 아동도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48) 임규혁·임웅, 『교육심리학』, 학지사, 2007, p.46.

49)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심리학』, 교육과학사, 2004, pp.51~54.

50) 임규혁·임웅, 『교육심리학』, 학지사, 2007, pp.54~56.

51) 임규혁·임웅, 앞의 책, pp.60~61.

(2~3세)로 에너지가 구강에서 항문으로 이동하여 배설물의 보유나 방출을 통해 만족을 얻는 시기이다. 3단계인 남근기(3~5세)는 자신의 성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동성 부모와는 갈등을 겪게 되는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동성 부모의 도덕관을 내면화하게 되고 슈퍼에고가 형성된다. 4단계인 잠복기(6~12세)에는 잠깐 휴식 기간에 들어갔다가, 5단계인 생식기(13세 이후)에 다시 성적인 에너지가 활발해지는 과정을 겪는다. 각 단계에서 지나친 만족과 좌절은 그 단계에 고착 현상이나 이상 성격 형성의 원인이 된다.

에릭슨(Erikson)은 프로이트와는 달리 인간의 심리적·사회적 발달단계에 관심을 보였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위기를 수용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 심리적 특징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서로 적절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8단계⁵²⁾로 설명하였다. 타인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단계인 신뢰감 대 불신감(0~1세)시기, 스스로 먹고 입고 배변훈련을 하며 자기 스스로 일을 수행하고 도전에 직면하는 회의감(2~3세)시기,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보이며 질책을 받으면 위축되기도 하는 주도성 대 죄책감(4~5세)시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근면성을 발달시키고 학습 상황에 높은 성취와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근면성 대 열등감(6~11세)시기, 청소년기의 중요한 육체적, 지적, 감성적 변화를 경험하여 정체성의 발달과 더불어, 정체성 혼란, 유실, 유예, 성취의 시기를 겪는 정체감 대 역할 혼미(12~18세)시기, 성인 초기의 친밀감 대 고립감(19~24세)시기, 그 외 생산성 대 침체성(25~54세), 통정성 대 절망감(54세 이상)시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성장 발달 단계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시기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2~3세에서부터 정체감의 혼란과 안정을 겪는 21~22세까지이다. 이 시기를 다시, 세상에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현실을 알아가는 유아기(2~5세), 사회와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아동기(6~11세),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다양한 발달과 더불어 혼란을 가져오는 청년 전기(12~15세), 나의 정체감의 성취를 가져오는 청년 중기(16~18세), 청년 후기(19~22세)의 5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중고생에 해당하는 청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이 성인으로 발달하는 과도기라는 점에 있다. 이는 아동기에도 성인기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시기이자 양자에 모두 속하는 시기이기도 하다.⁵³⁾

특별히 이 연구와 관련하여 중학생이 포함된 청년 전기의 발달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발달에 빠른 속도를 보인다. 신체의 외형적 발달은 물론 운동기능과 생식기능 등에도 아동기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둘째, 이 시기는 피아제가 ‘형식적 조작기’라 명명한 것처럼 논리적 사고가 이룩되는 시기로서 상상력을 통한 구상이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지적 발달을 유연하게 한다. 셋째, 이 시기는 자아의식의 발달을 가져온다. 따

52) 임규혁·임용, 앞의 책, p.62.

53) 강봉규, 『발달심리학』, 정훈출판사, 1992, p.172.

라서 청년기의 발달 과제는 자아 정체감⁵⁴⁾의 획득과 확립이 된다. 에릭슨은 이 시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①시간 조망 대 시간 혼미 ②자기확신 대 자의식 ③역할 실험 대 역할 고착 ④일 배우기 대 일 마비 ⑤성역할 분화와 양성 혼돈 ⑥지도력과 추종력 대 권위 혼돈 ⑦이념적 관여 대 가치의 혼돈⁵⁵⁾ 등 일곱 가지 갈등을 제안하면서, 청소년기 동안 모든 정체감 요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리를 통해서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중학교 1~2학년의 학생들은 기본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고등욕구가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매슬로(A. Maslow)도 욕구 5단계를 통해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애정 욕구, 자존 욕구를 하위의 기본 욕구로 두고 이 욕구의 각 단계는 점진적으로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도 충족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청소년 전기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어야만 다음 단계 또한 건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동화의 독자층으로 잡고 있는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까지 포함되는 청년 전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자아실현을 위한 고등욕구가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측면에서 동화를 통한 인성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⁵⁶⁾

54) 자아 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이 독자적인 존재라고 하는 자아의식과 사회에서의 역할,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사회의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 존재 증명', '자기 가치', '자기 통합성', '주체성' 등으로 의역되고 있다.(강봉규, 『발달심리학』, 정훈출판사, 1992, p.196.)

55) F. Philip Rice, 『청소년 심리학』, 정영숙·신민섭·설인자 역, 시그마프레스, 2001, pp.29~30.

56) 이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을 청소년기로 통칭한다.

Ⅲ. 동화의 인물과 성격 유형

1. 인물의 성격과 형성 구조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달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체계화시킨 최초의 학자는 프로이트(S. Freud)이다.⁵⁷⁾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 형성에 대한 이론 제시와 함께 인간의 정신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가 역설한 성격의 구조와 역동, 그리고 성격 발달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성격의 해석과 유형 추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다.

가. 성격의 구조

프로이트가 제시한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이드(id), 에고(ego), 슈퍼에고(superego) 세 가지가 있다. 이 요소들은 각기 제 영역의 성질과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행동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개인의 성격도 어떤 요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세 요소가 통일적이고도 조화로운 구성을 이룬다.⁵⁸⁾ 이제 이 세 요소들의 특징을 요약하여 성격분석의 구체적인 해석논리로 삼고자 한다.

1) 이드

이드는 성격의 가장 원시적 체제이면서도 중핵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다. 이드는 주관적 경험의 내적 세계이며 본능적 욕구(쾌락원리)를 만족시키려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움직인다. 이드는 외부세계가 요구하는 객관적 현실에 대해서도 어떠한 지식도 갖고 있지 않으며 관심도 없다.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의해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되며 도덕성에 대해서는 더욱 무관심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드는 원초적이고 일차적인 쾌락원리에 따라 그것이 요구하는 본능적 욕구만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이드는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본능을 포함한 유전적인 성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드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내적, 외적 자극으로 인해 생긴 인체의 조직에 발생한 흥분 또는 긴장을 즉시 줄이는 일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나 윤리에 의해 고통을 줄이기보다는 쾌락이나 만족감으로 긴장을 완화시키며, 고통을 제거하고 기쁨을 되살리고자 하는 쾌락원리에 충실하고자 한다.

57) 김계한, 「Freud의 성격형성론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제16집, 1983, p.257.

58)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프로이트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선영사, 1995, p.111.

긴장과 흥분을 감소시키고 기쁨을 성취함으로써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쾌락원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즉 반사장치와 일차적 과정이 그것이다. 반사장치는 감각적 흥분이 전달되었을 때, 즉시 운동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쾌락원리이다. 일차적 과정은 좌절감으로 인해 즉각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이드 내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긴장을 해소하려는 욕구로 나타난다. 일차적 과정은 프로이트가 ‘인지와의 동일성 확인’이라 부르는 과정을 통해 긴장을 해소할 목적으로 일어난다. ‘인지와의 동일성 확인’이란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영상과 현재 인지하고 있는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⁹⁾ 배고픈 젓먹이가 음식에 대한 영상만으로 배가 불러질 수 없지만, 이드는 음식에 대한 기억과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 즉, 이드는 기억 속의 영상과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과의 인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 속의 영상으로 대리만족을 일으키는 일차적 과정은 진정한 의미의 충족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이드가 취하는 반사장치와 일차적 과정만 가지고는 높은 진화론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음식을 제 때 공급해주던 사람이 계속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순간,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추구하고 찾아내야 하는 이차적 과정이 발달된다. 자신의 또 다른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세계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며, 자신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배운다. 이 때, 프로이드 성격의 두 번째 요소인 자아가 발달하게 된다.

2) 예고

예고는 한 마디로 성격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드와 슈퍼예고를 조절, 통제하고 총체적인 인격과 장기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맺어 나간다.⁶⁰⁾ 이드의 기억상과 외부의 실제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는 역할을 자아가 담당한다. 배고픔과 동시에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모양, 냄새, 맛 등을 조화시켜 이드의 욕구를 외부세계에 맞춤으로써 부조화를 방지한다. 이러한 예고는 주관적인 이드와 객관적인 외부(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별하여야 하는데 이때 예고의 인지능력이 발달한다.

이러한 예고는 현실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현실원리는 욕망을 충족시켜 줄 대상이 생기기 전까지 에너지의 배설을 연기해야 한다. 본능의 긴장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쾌락의 원리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 상황에 유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원리도 쾌락을 지향하고 있다.

현실원리는 이차적 과정에 의해 움직인다. 이드의 일차적 과정은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대상에 대한 기억영상을 갖는 지점까지 작용한다. 그 다음 단계는 기억영상에 대한 대상을 찾거나 생산해야 하는 일인데 예고의 이차적 과정에서 해결된다. 이차적 과정이란 현

59)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14.

60)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18.

실적인 사고를 말한다. 즉 욕구충족을 위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론하고 행동으로 검토한다.⁶¹⁾ 에고는 쾌락원리를 느끼기 위해 무조건적이지 않으며 외부세계의 현실검증을 통한 실제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에고의 이와 같은 경험적이고 지적인 모든 기능을 통제하는 고도의 정신과정은 이 이차과정에 의해 성립된다. 점차로, 현실원리가 도입되고 이차적 기능의 역할이 발휘될 때 외부세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 각종 기억들을 조직화함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고능력,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판단력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동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행동능력 등의 심리적 과정들도 이때 성장한다.

에고는 행동을 통제하고 어떤 환경에 처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어떤 방법이 만족스러운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격형성에 있어서 중추역할을 한다. 이 중대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에고는 원본능(原本能), 슈퍼에고 외부세계의 서로 엇갈린 요구를 종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에고는 체계화된 원본능의 한 부분으로서 이드의 목표를 진보시키기 위한 것이지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에고의 모든 힘은 이드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⁶²⁾ 에고가 외부세계와의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경험과 교육에 의해 현실화 된다.

3) 슈퍼에고

성격의 세 번째 요소인 슈퍼에고는 세 부분 중, 가장 마지막에 발달되는 부분이며 도덕적 기능을 맡는다. 인간이 사회에서 조화롭게 융합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도덕, 윤리의 지식과 체계를 습득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슈퍼에고를 형성함으로써 발달된다. 슈퍼에고란 외적 세계와 관계없는 내부 성향도 현실 그 자체도 아닌 도덕적 권력(moral arm)으로서 쾌락보다는 완전성을,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한다.⁶³⁾ 즉, 사회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 행동기준이 개인에게 내면화된 상태를 말한다.

슈퍼에고는 에고에서 발달되어 나온 것으로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상과 벌, 칭찬과 꾸중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나 규범, 그리고 이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도덕적 권위를 닮아감으로써 부모의 권위를 자기 내부에 내면화 하게 된다. 이렇듯 부모의 권위를 내재화시키면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도 제어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부모로부터 칭찬도 받게 된다.

61) 이상노, 『성격과 행동의 지도』, 중앙적성출판사, 1979, p.33.

62) 김제한, 앞의 논문, p.268.

63) 이상노, 앞의 책, p.33.

슈퍼에고는 자아이상과 양심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자아이상은 부모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는 데서 발달하며, 양심은 그러한 부모의 도덕적 기준에 이탈을 두려워하는 데서 발달한다. 자아가 착한 일을 하거나 착한 생각을 했을 때는 자부심으로 충만된 느낌을 갖게 되지만, 나쁜 행동을 했을 경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심리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자부심은 '자기애'가 되고 죄의식이나 열등감은 '자기증오'가 된다. 자아이상과 양심이라는 슈퍼에고는 부모의 슈퍼에고를 통해서 발달한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무의식중에 아이들의 윤리적 기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⁶⁴⁾ 슈퍼에고의 발달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만 학교 교사나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권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슈퍼에고가 가지고 있는 기능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슈퍼에고는 이드의 충동 특히,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인 충동을 억제한다. 둘째, 에고로 하여금 현실적인 목표 보다는 도덕적인 목표를 갖도록 납득시키는 일을 한다. 셋째, 자신의 슈퍼에고의 완전성을 위해 노력한다.⁶⁵⁾ 슈퍼에고는 에고와 달리 현실원리를 따르지 않으며 완벽한 세계를 원한다. 이러한 슈퍼에고가 갈망하는 완벽한 세계는 만족이 없는 비합리적인 세계로서 본능을 억제하려는 자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슈퍼에고가 강하면 이드의 본능을 금지시키고, 현실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에고의 노력을 억제시키면서 강한 죄의식을 생성한다.

나. 성격의 역동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로 구성된 성격은 이들이 외부세계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좌우된다. 세 영역을 이어주는 에너지가 슈퍼에고의 영역에 있느냐, 에고에 있느냐, 이드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며 역동성을 띤다. 이제 분석의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성격의 역동을 일으키는 프로이트의 주요 이론인 정신 에너지와 추진력, 억제력, 불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정신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는 성격의 세 영역인 이드, 에고, 슈퍼에고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형태를 말한다.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사고하는 모든 심리적인 작용을 정신 에너지가 수행한다. 정신 에너지는 신체 에너지로 자유롭게 전환이 일어나며 각 영역으로 분배가 일어나지만 그 양에는 변함이 없다. 프로이트는 정신 에너지의 양은 곧 본능이며 본능은 성격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를 이드가 장악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정신 에너지는 이드에 있으며 에고와 슈퍼에고는 자체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만, 동일시(identification)를

64)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25.

65) 이상노, 앞의 책, p.33.

통해서 이드가 가지는 에너지가 에고와 슈퍼에고로 유입되는데 이때 분배가 일어난다. 여기서 정신 에너지가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분배되어 활용되고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의 변환을 성격의 역동이라고 부른다. 정신 에너지가 이드에 주로 사용하느냐, 에고로 사용하느냐, 슈퍼에고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격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정신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한정된 에너지의 양으로 어느 한 영역에서만 주로 사용된다. 정신 에너지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이드의 정신 에너지는 쾌락의 원리에 따라 반사장치와 욕망 성취를 위한 일차과정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드의 모든 에너지는 본능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대상선택에 쓰인다. 배가 고플 때, 음식물을 먹으려는 욕구에 에너지를 사용하며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주변의 나무토막이나 자기 손가락을 빠는 행위로 에너지가 전위된다. 이드는 대상들 간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가 쉽게 전위되는 것이다.

둘째, 에고는 동일시를 통해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동일시란 이드에서 전환된 에너지를 에고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대상에 대한 생각과 대상 자체가 맞아 떨어질 때 동일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드는 주관적 영상과 객관적 현실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에고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 즉 주관적인 이드의 세계는 그 자체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므로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실제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대상과 일치시키는 동일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일시는 이차과정에서 수행하는데 주관적 대상과 객관적 대상을 맞추어 보는 것을 배운다. 이러한 동일시의 결과,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에만 투입되던 이드의 에너지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형성하는데 투입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원망충족 대신에 논리적 사고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드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은 자아 발달의 첫걸음이 되고, 이드에서 에고로 에너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현상은 성격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동적 현상을 일으킨다. 정상적인 사람은 에고가 정신 에너지를 대부분 독점 사용한다. 욕망충족으로 사용되는 에너지를 이드로부터 끄집어 와서 지각과 집중, 기억, 판단, 추리, 분별, 상상 등의 심리작용을 발달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향상된 정신 에너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에고는 본능충동이 곧장 배설하려는 추진력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에고의 억제력에도 에너지를 사용한다. 또한 에고를 누르는 슈퍼에고의 압력에 저항하는 데도 사용되며, 새로운 대상을 추구하고 흥미, 기호, 취미 등을 슈퍼에고에 형성시키는 데도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에고의 에너지는 성격의 세 영역인 이드, 에고, 슈퍼에고를 통합하는 데도 사용된다. 에고가 통합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세 영역은 원만한 가운데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슈퍼에고에 유입된 에너지는 동일시 과정에 사용한다. 아이들의 첫 대상추구는 그들의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의 윤리와 도덕, 가치 등을 가르

친다. 자녀들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의 도덕적 기준에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모에의 동일시는 슈퍼에고를 생성시키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아이상과 양심도 형성된다. 동일시 과정을 통해 슈퍼에고에 들어 온 정신 에너지도 추진력과 억제력에 사용되며 어떻게 역동하느냐에 따라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매우 도덕적이고 예의바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2) 추진력과 억제력

추진력(cathexes)은 본능적 충동이 곧장 배설 또는 행동화하는 것을 말하며, 억제력(anticathexes)은 이것을 저지하는 에고의 작용을 가리킨다. 이드는 단지 추진력만 갖고 있는 반면, 에고와 슈퍼에고는 억제력도 지니고 있다.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추진력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억제력의 갈등은 성격 발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배고픈 아이에게 지금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못 먹는 것에 대한 내적 좌절감이 생긴다. 이 좌절감은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외적 좌절감과 에고나 슈퍼에고가 못하게 하는 내적 좌절감으로 구분된다.

프로이트는 이 내적 좌절감은 반드시 외적 좌절이 그 밑바탕을 만들고 있는 경우에만 생긴다고 밝혔다.⁶⁶⁾ 예를 들어 슈퍼에고가 형성된 아이를 볼 경우, 부모의 금지 사항에 대한 처벌을 배우기 전까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부모의 동일시를 통해 내적 통제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추진력과 억제력의 힘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추진력이 강하고 억제력이 약한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반면, 억제력이 추진력보다 강할 경우 생각이나 행동은 억압되어 표출되지 않는다. 여기서 추진력과 억제력이 서로 대립할 때 ‘내적 갈등’이 된다. 내적 갈등은 이드와 에고와의 갈등, 에고와 슈퍼에고 간의 갈등으로 나뉘지만 이드와 슈퍼에고의 갈등은 에고의 개입으로 인해 생기지 않는다.

이드와 에고의 갈등, 에고와 슈퍼에고의 갈등은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쪽의 추진력과 억제력이 서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3) 불안

불안은 신체의 내부기관에 생기는 흥분 때문에 오는 일종의 고통스러운 감정적 경험을 말한다. 이런 흥분은 내적, 외적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고 인체의 자율신경 계통의 지배를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위협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입은 마르고 손발에는 땀이 난다. 이러한 불안은 공포감과 유사하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성격 발달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불안은 성격 역동

66)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44.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안이 갖는 유일한 기능은 예고에게 위험신호를 보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신호가 의식계에 나타나면 예고는 위험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비록 불안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불안은 사람에게 내적, 외적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 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⁶⁷⁾ 사람이 불안에 직면할 경우, 그것을 물리치거나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격의 역동이 발동된다. 불안의 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그것이다.

현실적 불안은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감정의 경험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원천은 외부세계에 있다. 이러한 외부의 위험 요소에 불안해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절로 두려워하게 되는 유전적 경향과 유전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불안이 그것이다. 우리는 현실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됨으로써 현실적 불안은 성장하면서 점차 사라진다. 그러나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외상을 겪는다면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신경증적 불안은 본능으로부터 오는 위험성이 인지될 적에 일어난다. 예고의 억제력이 본능의 추진력을 막지 못해 갑자기 충동적인 행위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신경증적 불안이 발생한다. 그 원천은 이드의 본능적인 대상에 있다. 신경증적 불안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아주 사소한 일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불안해하는 조바심의 형태, 둘째 어떤 사물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위험정보보다 더 크게 느끼는 강렬하고 비합리적인 공포심, 셋째 심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고나 슈퍼예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행위를 보이는 정신적 공황상태가 그것이다. 신경증적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은 현실적 불안보다 훨씬 어려운데, 그것은 신경증적 불안의 요소가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불안은 예고 속에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느껴져서 양심으로부터 어떤 위험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다. 자신의 양심에 생기는 두려움으로 양심이 잘 발달되고 자제력이 강한 사람은 도덕적 규칙을 어겼을 경우 죄책감을 느낀다. 도덕적 불안은 부모의 도덕적 기준이 내재화된 이후, 도덕적 불안의 제공자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게 된다. 따라서 도덕적 불안도 신경증적 불안과 마찬가지로 불안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

다. 성격의 발달

이드와 예고, 슈퍼예고로 이루어지는 성격의 구조는 각 영역간의 활동이 추진되고 억제하는 가운데 에너지의 집중과 심리의 결과에 따라 성격의 역동이 일어난다. 이런 가운데 성격은 한층 통합되어 세 영역 간의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진력과 억제력은 안정화되면서 퍼스낼리티(성격)는 보다 융통성 있고 질서정연하며 시종일관

67)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59.

된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좌절감과 불안을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⁶⁸⁾ 성격 발달 단계에 영향을 주는 기제로는 동일시와 전이, 승화, 자아의 방어기제 등을 들 수 있다.

1) 동일시

동일시는 이드의 본능적인 대상 선택을 예고와 슈퍼에고의 목표와 동일시함으로써 이드로부터 정신 에너지를 추출해낸다. 일반적으로 동일시는 외적 대상이나 타인의 특징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잘 동일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부모의 특징을 자기 스스로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본 따서 닮고자 하는 경향은 우리의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일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일어난다.

첫째, 동일시는 좌절감이나 불안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조건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자기애적 동일시로 자기와 꼭 닮은 대상을 발견하여 자기 사랑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와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다든지 자신이 타고 있는 차를 탄다든지 할 때, 우리는 나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람과 동일시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를 자기애적 동일시라고 한다. 서로 친하지 않다 할지라도 협동할 수 있는 측면이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동일시는 좌절감과 불안에서 온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항상 일등만 하는 친구를 닮으려고 한다. 이와 같이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과 불안을 성공한 사람을 닮고자 하는 동일시를 통해 나아가는 형태를 목표지향적 동일시라고 한다. 목표지향적 동일시는 성격 발달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하려 하며, 딸은 어머니와 동일시하려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부모가 해결해주지 못할 경우, 자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상을 찾아 이탈된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

셋째, 동일시는 추구하는 대상을 상실하였을 경우 발생한다. 이는 대상상실 동일시라고 하는데, 잃어버렸거나 가질 수 없는 대상을 가상하고 이것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동일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경우,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지금 이곳에 있다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 살기를 바라는지 그 이상적 모델로 자신을 동일시하려 한다. 즉, 아이들은 부모의 존재보다는 부모가 세워 둔 가치관에 기준을 두고 동일시한다.

넷째, 권위체가 금지한 것과 동일시를 하는 경우 일어난다. 이 경우에는 권위체에 대한 동경심보다는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이다. 양심에 저해되는 각종 금지사항들을 내면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격자로서의 동일시는 특별한 강요가 없어도 아이들 스스로 삼가는 억제력을 발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화 과정도 밝게 된다. 따라

68)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69.

서 사회 안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시는 자기애적 동일시를 제외하고는 좌절감, 불안 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에 사용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닮게 됨으로써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전이와 승화

본능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목표를 찾았지만 그 대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대상으로 추진력이 이동한다. 이때, 전이(displacement)란 에너지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가 전이되어도 본능의 원천 목표는 동일하고 변화된 것은 대상일 뿐이다. 젓먹이들은 젓 빠는 것부터 시작해 손가락 빨기, 물어뜯기 등을 통해 입술의 자극을 원하는데 이러한 쾌락은 어른이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능적 원천에서 에너지를 받고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들에 에너지가 합류하는 것을 ‘본능의 융합’이라고 한다. 어른들의 취미활동은 여러 동기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복합결정’이라고 한다. 본능 융합과 복합결정은 ‘응축’을 이룬다. 여러 가지 본능이 하나의 대상에 모여졌다는 것은 에너지 원(源)의 응축 현상이다. 가령, 정원 가꾸기나 모형 비행기 만들기 등의 취미는 많건 적건 간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긴장들을 동시에 해소해 준다.⁶⁹⁾

전이가 일어나는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는 첫째, 사회의 전통과 관습이다. 사회는 어떤 대상만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것은 금지함으로써 전이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 요소는 원래의 대상과 대체된 대상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의 정도이다. 본래 대상과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대상들이 서로 동일시되는 정도를 말한다. 만약, 첫째 방법으로 긴장 해소를 금지당하면 사람들은 그와 아주 유사한 방법을 찾으려 한다. 본래 대상에서 대체된 대상이 계속해서 옮겨갈 경우, 나중에는 애당초 대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대체된 대상은 본래의 선택에 비해 긴장해소의 측면에서 불충분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예고는 최종 선택을 하기까지 이드와 슈퍼에고 및 외부세계의 요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타협을 시도한다.

전이가 일어났을 때 대체된 대상이 보다 높은 문화적 목적을 표방할 경우 이때의 전이를 승화라고 부른다. 전이가 그렇듯 승화도 본능의 에너지 원천과 목표는 같다. 다만 긴장을 감소시켜 주는 대상이나 수단이 지적, 문화적, 예술적인 면으로 흘러간다. 훌륭한 예술품이 탄생하는 배경도 본능의 갈망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승화는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인류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인간이 원시적 대상선택을 억압하고 승화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⁷⁰⁾

69)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79.

70)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82.

성격 발달에 있어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에너지를 전이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에너지가 전이되지 않는다면 인성의 발달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드에서 에고, 에고에서 슈퍼에고로 에너지가 전이될 때 인성 발달과 함께 성격도 발달한다.

3) 에고의 방어기제

에고는 불안을 일으키는 위협과 위협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불안에 대해 될 수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식으로 위협을 극복하려 하지만,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인성의 발달을 방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에고가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를 방어기제라 한다. 방어기제에는 억압, 투사, 반동형성, 고착, 퇴행의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억압은 불안을 초래하는 생각이나 충동, 공포, 소원 등을 의식세계로부터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억압된 내용들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만나면 다시 의식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 억압된 내용은 꿈, 돌발적 행동 등으로 나타나고 한다.

둘째, 투사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충동이나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불안을 감소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행동으로 어떤 질책 받는 것을 두려워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

셋째, 반동형성은 행동과 충동이 죄의식으로 인해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으로 바꾸어 나타나는 행위를 말한다. 반동형성 된 행위는 과장되며, 걸치레가 심하고 남을 의식한다. 진짜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감추려는 수단으로 반대의 말을 한다든지 괜히 화를 내는 것 등 반대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성격 발달 측면에서 반동형성의 방어기제는 성격을 딱딱하고 융통성 없게 만들 수 있다.

넷째, 고착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두려워하며 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고착의 원인은 실패, 처벌,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다. 고착 현상은 어떤 대상이나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구조와 역동, 발달 단계에서 일어난다. 이드의 세계에만 고착되어 있는 경우, 슈퍼에고에 지배되어 있는 경우, 어떤 특별한 방어기제에만 의존하는 경우 등 고착에 빠지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다섯째, 퇴행은 현실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어려울 경우 초기의 어느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서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동생으로 인해 엄마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기어 다니거나, 이불에 오줌을 싸는 행동 등이 바로 퇴행 현상이다. 퇴행은 잘 통제된 현실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의 방어기제는 에고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현실을 왜곡시키고, 숨기며, 심리발달의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기제는 성장과정 중에 필요한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에고로부터 닥쳐오는 모든 요

구를 방어기제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물의 행동 특성 분석

가. 분석 대상 작품과 인물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23종 교과서 중, 1학년 교과서에 실린 동화 작품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3학년의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배제된 것은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2, 3학년의 국어 교과서는 아직 2009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는 총 13편⁷¹⁾으로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10편, 2학기 교과서에 3편이 전부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작품과 작가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교과서 수록 동화 현황

학 기	출 판 사	작 품	작 가
1학기	해냄에듀	고구마	현덕
		육촌형	이현주
	미래엔컬처그룹	나비를 잡는 아버지	현덕
	교학사 ①	나비를 잡는 아버지	현덕
		육촌형	이현주
	지학사	하늘은 맑건만(장편)	현덕
	천재교육 ①	몽실언니(장편)	권정생
	천재교육 ②	턱수염	최나미
	도서출판 디딤돌	너도 하늘말나리아(장편)	이금이
웅진씽크빅	나비를 잡는 아버지	현덕	
2학기	교학사 ②	몽실언니(장편)	권정생
	금성출판사	명혜(장편)	김소연
	천재교육 ③	명혜(장편)	김소연

중학교 국어 23종 1학년 1~2학기 교과서 46권에는 동화 13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작품 수를 제외하면 실제적인 분석 대상 작품은 현덕의 <고구마>, <나비를 잡는 아버지>, <하늘은 맑건만>, 이현주의 <육촌형>, 권정생의 <몽실언니>, 김소연의 <명

71) II-1의 '동화 장르의 미적 특성'에 따라 아동문학의 서사류를 '동화'로 총칭하여 분류하였다.

혜>, 최나미의 <턱수염>, 이금이의 <너도 하늘말나리아> 등 총 6명의 작가가 쓴 8편이다. <고구마>, <몽실언니>, <명혜>, <너도 하늘말나리아>는 교과서에 부분만 게재되어 있어서 전편(全篇)이 실려 있는 원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동화의 인물은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주인공의 역할은 더욱 그러한데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 변화에 따라 동화의 주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화의 인물 성격 분석 시 주인공을 위주로 분석하되, 성격 특성이 두드러지나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주변 인물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의 작품명과 등장인물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 작품 인물

학 기	출 판 사	작 품	등장인물
1학기	해냄에듀	고구마	기수, 수만
		육촌형	성태, 근태
	지학사	하늘은 맑건만	문기
	천재교육	턱수염	승권
	도서출판 디딤돌	너도 하늘말나리아(장편)	미르, 소희, 바우
	웅진씽크빅	나비를 잡는 아버지	바우
2학기	교학사	몽실언니(장편)	몽실
	천재교육	명혜(장편)	명혜

나. 성격 유형의 추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분석할 동화작품은 8편이며, 작중인물은 12명이다.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텍스트를 최소사건⁷²⁾으로 나누어 패러프레이즈 한 뒤, 그것을 다시 시퀀스⁷³⁾로 묶어 내용 전개의 흐름을 요약하는 방법을 취한다. 최소사건 별로 인물 행동의 변이를 추론하고 행동 특성을 III-1에 의해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과 연결시켜 성격 유형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작중의 핵심사건 속에 내재된 행동 특성은 이야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프로이트의 퍼스널리티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인물의 심리적 행동특성은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데, 여기서 지배적인 성향을 중심으로 성격 유형을 명명하게 된다.

72) 최소사건이란, 텍스트에서 주제나 내용을 형성하는 의미 있는 최소 행동이나 사건, 한 개의 문장이나 작은 단락일 수도 있고, 몇 개의 단락의 집합일 수도 있다. 심리 소설에서는 이미지나 심리적 반응이 사건의 개념일 수 있다.

73) 시퀀스(sequence)는 영화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독립적인 구성단위'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몇 개의 최소사건을 보다 큰 의미집단으로 묶어 명명하였다.

1) 「고구마」⁷⁴⁾

가) 텍스트의 의미망 분절과 요약

「고구마」는 현덕이 1938년 11월 《소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6학년 남학생들이 서로 의심하고 믿고, 다투고, 화해하는 이야기가 주조를 이룬다. 사라진 고구마를 찾아 추적하는 가운데 친구들의 우정을 확인하는 것이 주제를 형성한다. 이 작품은 10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하여 6개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다.

<의심 시퀀스>

① 수만은 농업 실습으로 심은 고구마를 몰래 캐먹었다는 의심을 받는다.(사라진 고구마)

<믿음 시퀀스>

② 기수는 수만이 훔쳐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수만에 대한 기수의 믿음)

③ 수만의 행동에 친구들이 더 의심할수록 기수는 수만을 믿으려고 한다.(기수의 갈등)

<우정 시퀀스>

④ 기수는 변한 수만의 모습에 가여움과 누추함을 느끼기도 한다.(수만의 누추한 모습)

⑤ 수만은 아버지가 죽고 집안이 몰락하자 말 수도 줄고 친구들과 어울리려 하지도 않는다.(수만의 행동 변화)

⑥ 수만은 친구들의 놀림에 아랑곳하지 않는다.(친구들의 놀림)

<의심Ⅱ 시퀀스>

⑦ 수만의 책상 속에 ‘고구마 같은 것이 있다’는 친구의 말에 기수도 의심하기 시작한다.(기수의 의심)

⑧ 점심시간에 수만이 뭔가를 들고 밖으로 나가자 친구들과 기수도 쫓아 나간다.(수만을 쫓는 기수)

<분노의 시퀀스>

⑨ 기수는 감추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려 하지만 수만은 완강히 거부한다.(수만과 기수의 다툼)

<화해의 시퀀스>

⑩ 수만이 몰래 먹고 있었던 것은 고구마가 아닌 누은밥이었다는 사실에 친구들도 기수도 부끄러움을 느낀다.(미안한 마음)

주인공 수만이 농업 실습으로 심은 고구마를 캐먹었다는 의심을 받지만, 기수는 의심하지 않는다. 결국, 기수도 수만을 의심하게 되고 그와 갈등을 겪는 과정으로 시퀀스는 흘러간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친구들의 감정은 역동적으로 안정을 되찾는다.

74) 오세영 외 9인, 『국어 1학년-1학기』, 해냄에듀, 2010.

임홍은, 정우혜, 현덕 외 1인, 『물딱총』, 겨레아동문학연구회, 보리, 1999.

나) 인물의 행동 특성

(1) 수만

수만은 명랑한 아이였다. 아버지가 죽고 집안이 기울자 속을 모르는 아이로 변했다. 가정 형편의 변화는 수만의 심리적 변화를 가져왔고, 내면세계를 닫고 산다. 친구들이 고구마를 훔쳤다고 확신한 이유도, 수만의 가난해진 가정형편과 변한 행동 때문이다.

수만은 교장 선생님 댁의 일을 하는 것과 어머니가 남의 집 부엌일을 해 주고 얻어 온 늘 은밥을 꺼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슈퍼에고적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려는 강한 에고적 성격도 보여준다. 최소사건 별로 일어나는 수만의 행동 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 ‘수만’의 행동 특성⁷⁵⁾

슈퍼에고		●				●				●
에고			●	●				●		
이드										
최소사건		③	⑤	⑥		⑧		⑨		⑩

수만의 등장은 최소사건 ③부터이다. 고구마가 없어지고 그것을 훔쳐간 이가 수만이라고 의심할 때, 수만은 “한편 손에 차 주전자를 들고”, “고개를 기우뚱 땅만 보며 교장선생님 댁”에서 나온다. 친구들의 앞을 지날 때, “겨우 얼굴을 들어 어색한 웃음을 보이고” 그대로 지나가는 행동을 취한다. 수만의 주머니에 든 것이 그의 말대로 ‘운동모자’였다면 친구들의 의심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달아나듯 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만의 이러한 행동은 숨기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심리의 표출이다. 따라서 ③은 수만의 ‘부끄러움’을 내포한 도덕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슈퍼에고적 성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는 수만에 대한 기수의 회상이다. 수만은 ‘쾌활하고 명랑했던 아이’였다. 아버지가 죽고 가난해지자 ‘남과 사귀기를 싫어하고 말이 없어진 아이’로 변했다. 즉,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현실적 불안이 일면서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내보이게 한다. 이것은 수만의 행동 변화를 몰고 온 것이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에고적 특성이 표출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⑥에서 수만은 부끄러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을 놀리며 모자를 던진 친구에게 수만은 그런 친구들에게 “첻!”하고 혀끝을 찬다. 친구들의 조롱에 폭력으

75) 인물의 성격 특성을 내포한 핵심사건을 추적하는 이러한 행동 특성 분석 방식은 이야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인물의 성격적 특성과 양상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행동 특성이나 성격 분석시에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그래프 표상형식은 안성수의 강의록에서 발췌 인용하였으며, 그의 앞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로 맞서기 보다는 참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 특성은 이드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강한 예고적 성격의 표출로 볼 수 있다.

⑧은 친구들의 의심이 반전상황을 맞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복선에 가깝다.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한 수만은 책상 서랍에서 “남이 볼까 두려워하는 듯 한 번 좌우를 살피고는” 뭔가를 꺼내 주머니 속에 넣고 교실 밖으로 나간다. 현장을 목격하고자 친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수만은 두리번두리번 사방을 돌아보고 그것을 꺼내 먹기 시작한다. 이러한 수만의 행동은 도덕적 수치심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점에서 슈퍼에고적 특성으로 읽을 수 있다.

⑨에서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자, 수만은 먹던 걸 호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그런 수만을 향해 친구들은 다그치고, 수만은 결코 굽히지 않는다.

“내가 대체 뭘 흠쳤단 말야! 멀쩡한 사람을.”

“뭘 흠쳐? 고구마 말이다, 고구마.”

“고구마 내가 흠치는 걸 네 눈으로 봤어?”

“그럼 저 호주머니에 감춘 건 뭐냐?”

“.....”

“호주머니에 감춘 거 냉큼 못 내놓겠니?”

“.....”

“아, 못 내놓겠어?”

수만이는 여전히 입을 봉하고 섰더니 갑자기 한마디로 딱 끊어서,

“못 내놓겠다.”

그리고 할 대로 해라 하는 태도로 양복 주머니를 두 손으로 움켜쥔다.⁷⁶⁾

수만은 당당하다.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그것이 자신의 도덕적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비양심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거짓된 행동을 강요하는 주위 상황에 당당하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회적 상황과의 대결 속에서 자아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예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⑩에서 친구들은 강압적으로 수만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고구마가 아닌 것에 대해 수만은 친구들 앞에 몇몇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남부끄러움에 취해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이는 수만의 슈퍼에고적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수만은 예고적 행동 특성과 슈퍼에고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만은 예고적 성향과 슈퍼에고적 성격을 겸비한 양면적 성격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76) 임홍은, 정우해, 현덕 외 1인, 앞의 책, p.174.

(2) 기수

친구들이 농업 실습용으로 심은 고구마를 수만이 훔쳐갔다고 의심 할 때, 기수는 수만의 편에 섰다. 수만이 친구들의 조롱을 받을 때 역성을 들어주기도 한다. 자신과 친했던 수만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행동 변화를 가져왔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고적 성격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정된 예고적 성격을 보이던 기수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수만의 배반을 느끼는 순간, ‘알 수 없는 노여움’에 몸이 떨리는 이드적 성격을 보인다. 결국, 기수는 수만을 도둑으로 몰아간다. 수만이가 먹던 것이 훔친 고구마가 아닌 높은밥이라는 사실에 기수는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 긍정적인 이차적 과정의 예고적 성격으로 발전한다. 기수의 행동 특성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기수’의 행동 특성

슈퍼예고				●		
예고	●	●	●			●
이드					●	
최소사건	②	③	④	⑥	⑨	⑩

②에서 기수는 고구마를 훔쳐간 이가 수만이라는 인환의 말에 머리를 쪼는다. 그리고 수만에 대해 “내가 잘 알지만, 그런 짓 할 애가……”아니라며 역성을 들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 답답해한다. 기수가 경험했던 수만의 행동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럴 아이가 아니라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고에 의한 논리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③은 기수로 하여금 수만을 의심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기수는 ‘이번에도 머리를 쪼는 것’으로 대신하며 친구의 ‘인격’을 믿는다.

④에서 기수는 수만과 만난다. 친구들의 의심에 기수도 의심의 눈으로 수만을 쳐다보며 불품없어진 모습에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기로 사람이 어찌면 이처럼 변한단 말이나.’하고 자못 업신여겨 보기도 한다. 수만의 과거 모습과 지금의 변한 모습을 기수는 분명하게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수의 논리적 사고는 예고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⑥에서 기수는 수만의 변한 행동에 대해 이해하며 동정심이 생겼다. 지금, 친구들이 너를 의심하고 있다고 알려주려는 것도 친구들이 수만을 놀릴 때 그의 역성을 들어주는 행동도 동정심이 발휘되는 기수의 슈퍼예고적 특성과 관련된다.

⑨는 기수의 행동에 변화가 이는 상황이다. 수만을 믿었던 기수는 그가 먹고 있는 것이 ‘정녕 고구마’라는 것을 확신한 순간, 앞장 서 나간다.

기수는 자기 눈을 의심할 만큼 놀랐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노여움에 몸이 떨린다. 그 수만의 모양이 짝 없이 추하고 밍다. 기수는 자기가 먼저 앞장을 서 나갔다. 그리고 등 뒤에 가까이 이르러,

“너 거기서 먹는 게 뭐냐?”

하고 갑자기 소리치자, 수만이는 깜짝 놀라 무춤하더니,⁷⁷⁾

기수는 수만의 배신감에 대한 노여움에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앞장서서 수만을 다그친다. 그 행동은 이드적 성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⑩에서 모든 갈등이 해결됨과 동시에 기수의 성격 변화도 일어난다. 기수의 이드 추진력은 수만이가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과 수만이가 먹고 있었던 것은 늘은밥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순간 멈춘다.

(……) 그러나 수만보다 갑절 부끄럽기는 인환이었다. 아이들이었다. 더욱이 기수 자신이었다. 손에 든 한 덩이 늘은밥을 그대로 어찌할 줄을 몰라 멍하니 섰더니 그걸 두 손으로 수만이 손에 쥐어 주며 다만 한마디 입 안의 소리를 외고 그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인다.

“용서해라.”⁷⁸⁾

기수의 이드 추진력은 예고의 억제력으로 에너지가 대량으로 전이되면서 성격 발달의 한 측면을 이루게 된다. 기수의 ‘용서해라’라는 말에는 부끄러움, 미안함, 이해, 화해 등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기수의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조롱할 일이 아니며, 기수가 취한 행동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사회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수의 예고적 성격이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기수는 예고에 있던 정신 에너지가 이드로 유입되고 다시 예고로 유입되는 과정에 성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수만이에 대한 믿음이 잠깐 흔들리면서 이드적 행동을 취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수만에 대한 인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준다. 이에, 기수는 성격적 안정을 되찾는다. 따라서 기수는 약간의 이드적 성향과 슈퍼예고적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예고적 성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예고적 성격의 인물로 명명할 수 있다.

2) 「나비를 잡는 아버지」⁷⁹⁾

가) 텍스트의 의미망 분절과 요약

77) 임홍은, 정우해, 현덕 외 1인, 앞의 책, p.171.

78) 임홍은, 정우해, 현덕 외 1인, 앞의 책, p.175.

79) 윤여탁 외 17인, 『국어 1학년-1학기』, 미래엔컬처그룹, 2010.

「나비를 잡는 아버지」는 현덕이 1946년 《집을 나간 소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일제 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주인공 바우가 아버지와의 갈등을 겪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11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한 뒤 5개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다.

<빈정거림 시퀀스>

- ① 바우는 나비를 잡으러 다니는 경환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경환에 대한 미움)
- ② 바우는 경환이와 다르게 농사나 짓고 있는 자신이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다.(바우와 경환의 비교)
- ③ 바우는 경환이의 달라진 외모와 행동을 부러워한다.(경환을 부러워 함)
- ④ 경환이가 잡으려는 나비를 바우가 잡았지만 그냥 날려 보낸다.(나비를 날려 보냄)

<보복 시퀀스>

- ⑤ 경환이는 분풀이로 바우네가 소작하는 참외밭을 망친다.(경환의 분풀이)
- ⑥ 바우는 경환을 때린 자신의 행동에 불안해한다.(불안한 바우)
- ⑦ 아버지는 바우 때문에 참외밭을 망쳤다며 역정을 내신다.(아버지의 역정)

<고집 시퀀스>

- ⑧ 경환에게 나비를 잡아다 주라고 하지만, 바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굴복하지 않는 바우)
- ⑨ 아버지가 바우의 그림책을 찢는다.(찢겨진 그림책)

<분노 시퀀스>

- ⑩ 나비를 잡아 오라고 바우를 다그칠수록 바우는 분노만 느낀다.(분노를 느끼는 바우)

<아버지의 나비잡기 시퀀스>

- ⑪ 힘들어하는 바우 앞에 아버지가 대신 나비를 잡고 있다.(아버지와 나비)

이 작품의 주인공인 바우는 경환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대한 행동을 보이고, 경환은 보복을 하는 갈등 구조를 형성한다. 바우와 경환의 갈등은 곧, 바우와 아버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바우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애정을 느끼면서 갈등은 해결되고 바우의 행동도 안정을 찾는다.

나) 인물의 행동 특성

(1) 바우

글의 서두에서 바우는 집안 사정으로 상급 학교의 진학을 포기한다. 그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글의 내용 전개로 짐작하건대 바우가 자신의 형편을 알고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바우가 슈퍼에고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부리움과 억울함은 항상 잠재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드의 본능적 성향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심화된다. 바우의 강한 예고적 성향은 경환의 나비를 잡아오라는 부모의 말도 거역한다. 자신의 그림들이 찢겨진 것을 보고 분노가 극에 달할 때, 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해서 열심히 나비를 잡는 것을 본다. 이 때, 바우의 예고적 성향이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선다.

<그림 4> ‘바우’의 행동 특성

슈퍼에고						●				●
예고	●	●	●				●	●	●	
이드				●	●					
최소사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⑩	⑪

①-③은 바우가 경환을 직접 만나기 전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①에서 바우는 경환의 노랫소리에 빈정거리는 웃음을 짓고 그 반대편으로 돌아앉는 행동을 취한다. 그러면서 ‘겨우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배워 가지고 온 것이 유행가 나부랭이냐’며 부정적 심리를 드러낸다.

②는 바우가 경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를 회상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바우는 한날에 소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한 경환과 그렇지 못한 자신의 현실이 비교되어 억울하기도 부럽기도 하다.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하는 벌충을 바우는 그림 그리는 즐거움으로 전이시켰음을 보여준다.

③에서 바우는 휴가를 맞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을 몰고 다니며 나비를 잡는 경환의 행동을 곱게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①-③은 가정 형편 때문에 상급 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자신과는 달리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경환에 대해 반감을 보인다. 이는 바우의 부정적인 예고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④에서는 바우의 유치한 원망충족의 행위가 일어난다. 자아가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하는 경우 자아추진력은 다시금 본능적인 대상추진력에 밀려나서 유치한 본능적 행동을 일으킨다.⁸⁰⁾ 바우는 그림 그리는 것으로 상급 학교 진학 욕구를 전이시키는 것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바우의 자아는 본능적인 대상추진력에 밀려 경환의 나비를 잡고서도 그에게 주지 않고 도로 날려 보내는 유치한 행동을 보인다.

⑤에서도 바우의 이드적 행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바우는 자기 집 참외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경환과 심하게 다툰다.

80)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36.

⑥은 ⑤-⑥의 행동에 대한 결과이다. 자신의 행한 일에 ‘가슴이 두근거리었다.’ 절제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⑧에서 바우는 나비를 잡아 가지고 와서 경환에게 빌라는 부모의 말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음을 내비친다.

바우는 어머니가 등을 미는 대로 부엌으로 뒤꼍으로 피하다가는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담 밑에 붙어 서서 움직이지 않는 바우를 어머니는 쫓아 나와 다조진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안 가면 어떡할 셈이냐. 땅 떨어져도 좋겠니? 너도 소견이 있지.”

그러나 바우는 어슬렁어슬렁 길로 나가더니 (……) 바우는 다만 자기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머리를 굽힐 까닭이 없다는 고집이 정자나무통만큼 뻗뻗할 뿐이었다.⁸¹⁾

바우는 경환에게 잘못했다고 빌라는 부모의 말에 ‘자신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음’을 되뇌이며 강한 예고적 성격을 보여준다.

⑨에서 바우는 자신의 그림들이 찢기어 있는 것을 보며 “한종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애매한 미움을 받고 또 그림책을 찢기고 한 그 억울한 감이 가슴 속에 벽차 다른 무엇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말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⑧-⑨에서 그동안 불편했던 심리를 보이며 강한 예고적 성격을 보였던 바우는, 결국 ⑩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속하다’며 자신의 노여운 마음을 그리고 있다. 이 ‘노여움’은 바우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에 대해 암시해주고 있다.

⑪은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이다. 바우는 ‘노여움’으로 인해 좌절감과 불안을 제거하고자 ‘가출’이라는 유치한 원망충족 행위를 하려 한다.

‘아버지 말대로 정말 집을 나오고 말까. 그러면 아버지도 뉘우칠 때가 있겠지. 그리고 서울 같은 도회로 나가서 어떻게 고학이라도 해 볼까.’

바우는 정말 그렇게 해 볼 것처럼 벌떡 일어선다.⁸²⁾

그러나 바우가 행하려고 했던 가출은 동일시를 통해 제거된다. 자신을 대신해서 경환에게 갖다 줄 나비를 잡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바우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을 느낀다.

바우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아래를 바라보고 섰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덕 모래 비탈을 지르르 내려가며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지금까지 잠기어 있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 그 아버지가 무척 불쌍하고 정답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81) 윤여탁 외 17인, 앞의 책, p.192.

82) 윤여탁 외 17인, 앞의 책, p.195.

것 같고, 바우는 울음이 되어 터져 나오려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참으며 언덕 아래 메밀밭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⁸³⁾

바우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일시됨으로써 자아의 안정을 찾는 것이었다. 주로, 아들은 아버지와 딸은 어머니를 닮게 되면서 인격의 발달을 가져온다. 부모가 아이들이 바라는 바를 해결해주지 못할 때, 자녀들은 실망을 느끼고 적절한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된다. 바우는 자신을 위해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순간 목표지향적 동일시를 이룬다. 동시에 이드로부터 정신 에너지를 추출해 내고 슈퍼에고의 한 부분인 완전함을 추구한다.

따라서 바우의 행동 특성은 에고적 특성과 이드적, 슈퍼에고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인물의 세 가지 행동 특성 중 에고적 성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에고적 성격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3) 「하늘은 맑건만」⁸⁴⁾

가) 텍스트의 의미망 분절과 요약

「하늘은 맑건만」은 현덕이 1938년 《소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자신의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 밑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직면한 위험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6개의 시퀀스와 15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안 시퀀스>

① 문기는 자신이 숨겨놓은 공과 쌍안경 등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문기의 불안)

<거스름돈 시퀀스>

② 문기는 고깃간 주인으로부터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는다.(거스름돈)

③ 문기는 남은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기로 결정한다.(돈을 갖기로 함)

④ 문기는 자신의 욕망이 끌리는 대로 행동한다.(욕망의 착수)

<죄책감 시퀀스>

⑤ 문기는 이상한 행동으로 삼촌에게 책망을 듣는다.(삼촌의 꾸중)

⑥ 문기는 삼촌의 꾸중에 모두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다.(죄책감을 느끼는 문기)

83) 윤여탁 외 17인, 앞의 책, p.197.

84) 방민호 외 12인, 『국어 1학년-1학기』, 지학사, 2010.

<협박 시퀀스>

- ⑦ 수만이 나타나 문기를 꺾이지만, 문기는 거부한다.(다짐하는 문기)
- ⑧ 수만이는 문기를 계속적으로 협박한다.(수만의 협박)
- ⑨ 문기의 협박에 못이겨 수만은 숙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다.(돈을 훔치는 문기)

<거짓과 정직 시퀀스>

- ⑩ 문기는 숙모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 한다.(거짓에 대한 합리화)
- ⑪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괴로워한다.(정직을 요구함)
- ⑫ 문기는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에 힘들어 한다.(거짓에 대한 두려움)
- ⑬ 선생님께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정직과 거짓의 갈등)

<자동차 사고 시퀀스>

- ⑭ 문기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다.(자동차 사고)
- ⑮ 문기는 작은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고백한다.(죄를 고백하는 문기)

이 작품의 주인공인 문기는 순간적인 유혹을 느끼면서 갈등을 겪는다. 자신의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 작품이 시작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퀀스가 조직된다. 이에, 문기의 행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한다.

나) 인물의 행동 특성

(1) 문기

문기는 부모가 아닌 작은아버지 밑에서 자라난다. 부모처럼 잘해준다고 하여도 문기의 마음 한가운데는 늘 부족함이 있다. 그러한 욕망으로 도둑과 거짓이라는 죄를 짓게 되지만 작은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점과 부모가 없어도 빠뜨려지면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린다. 결국, 문기는 자동차 사고를 통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며 자책하는 순간 강한 슈퍼에고적 성격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건전한 자아상으로 이행한다.

<그림 5> '문기'의 행동 특성

슈퍼에고	●			●			●	●	●	
에고			●		●					●
이드		●				●				
최소사건	①	④	⑤	⑥	⑦	⑨	⑩	⑫	⑬	⑮

①에서 문기는 불안하다. 자신이 사다 숨겨놓은 공과 쌍안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무지 글이 읽어지지 않는다.’라는 심리 표현에서 문기가 떳떳하지 않은 행동을 취했음을 암시한다. 문기는 도덕적 불안의 슈퍼에고적 행동을 보인다.

②-④는 문기가 불안한 이유를 회상시제로 보여 준다.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④에서 쓰기로 결정한다.

그래도 으스스한 골목을 걸을 때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리었으나, 밝은 큰 행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로 변했다. 길 좌우편 환한 상점 유리창 안의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인 양, 손짓해 부르는 듯했다. 드디어 그들은 공을 샀다. 만년필을 샀다. 쌍안경을 샀다. 만화책을 샀다. 그리고 활동사진 구경도 갔다. 다니며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다.⁸⁵⁾

문기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채 이드의 욕구에 사로잡혀 행동한다.

⑤는 문기의 이드적 추진력을 억제하는 에고의 원동력으로 기능한다. 문기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삼촌이 타이르려고 문기를 부르지만, 문기는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삼촌 앞에서 문책을 받는다. 이 문책을 통해, 문기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⑥에서 문기는 자신의 행동을 ‘생각할수록 낮이 뜨겁다.’며 정지시킨다.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이었다. 또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쓰고 말았다. 아아,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낸 사람이 삼촌이었다. 그리고 조카의 장래를 자기의 그것보다 더 중히 알고 염려하며 잘되어 주기를 바라는 삼촌이었다. 그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엇그제 주먹을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⁸⁶⁾

문기는 남의 돈을 훔쳤다는 것과 거짓말을 했다는 양심에 위배된 도덕적 불안을 느낀다.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 쌍안경도 버리고, 공도 버리고, 남은 돈은 고깃간 주인집 마당에 던져놓는다. 그러면서, 도덕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슈퍼에고적 성향을 보인다.

⑦은 문기의 자아 억제력이 작용하는 장면이다. 문기는 수만에게 “난 싫다.”, “그리고 나도 인젠 그런 건 안할 작정이다.”며 자신의 의지를 보인다. 도덕적 양심을 중요시 하는 문기의 슈퍼에고적 성향이 이드의 쾌락 원리에 따라 잠깐 무너졌지만, 그것을 에고가 다시 조절하면서 삶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

그러나 문기는 ⑨에서 수만의 끊임없는 협박에 못이겨 숙모의 돈을 훔치는 반사적 행동을

85) 방민호 외 12인, 앞의 책, pp.159~161.

86) 방민호 외 12인, 앞의 책, p.162.

한다.

⑩-⑭는 문기가 심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심리를 나타낸다. ⑩에서 풀이 죽어 집 마루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에서, ⑫의 무거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문기의 행동에서 알 수 있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멍멍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지껄이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킁킁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⁸⁷⁾

문기가 느끼는 도덕적 불안의 원인은 더 이상 외부에 있지 않다. 공포감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공포감이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안겨 주는 죄악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죄악감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지은 사람은 차라리 외부에서 어떤 처벌을 해주어서 속죄하고 죄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⁸⁸⁾ 같은 논리로, 문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상태여서 차라리 외부에서 어떤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

⑬에서도 자신의 죄를 선생님께 자백하려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슈퍼에고적 성향을 보인다. ⑮에서 문기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다. 자동차 사고는 우연히 난 것이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 버린 것, 그리고 또 붓장 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 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싸고 있던 허물이 한 꺼풀 한 꺼풀 벗어지면서 따라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⁸⁹⁾

불안은 퍼스낼러티의 발달이나 역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⁹⁰⁾ 불안은 에고에게 위험신호를 보내어 자아로 하여금 위험에 대처할 준비를 하게 한다. 이런 경고를 받은 에고는 다가오는 위험을 물리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성격의 발달을 가져온다. 만일, 위험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면 불안은 신경쇠약 등의 병을 낳는다.

문기는 자신의 불안감을 고백이라는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벗어났다. 불안을 제거하는 또

87) 방민호 외 12인, 앞의 책, p.170.

88)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67.

89) 방민호 외 12인, 앞의 책, p.172.

90)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57.

하나의 학습을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다. 이 학습을 통해 문기의 예고는 더욱 안정되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문기는 슈퍼에고적 특성에 예고적 성향을 중간 중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기는 그의 행동 특성 중 도덕적 양심의 회복이라는 지배적 성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슈퍼에고적 성격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4) 「육촌 형」⁹¹⁾

가) 텍스트의 의미망 분절과 요약

「육촌 형」은 이현주가 2004년 보림출판사를 통해 발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학교에서 육촌 형과 싸움을 한다. 싸움의 원인은 본인들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권력을 행사하는 학생 집단이다. 이 작품은 18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한 뒤 8개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다.

<육촌 형 장근태 시퀀스>

- ① 육촌 형 장근태는 언청이이며 가난하다.(언청이 장근태)
- ② 근태는 막노동판에서도 열심히 일한다.(일하는 장근태)
- ③ 근태와 나(성태)는 사이가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근태와 성태)

<양짓담과 음실 마을 시퀀스>

- ④ 양짓담과 음실 마을은 육이오 난리 통에 서먹서먹하게 지냈다.(양짓담과 음실)

<음실의 두목 시퀀스>

- ⑤ 음실 마을에 유세아라는 남자 아이가 서울에서 전학을 왔다.(전학 온 유세아)
- ⑥ 유세아를 놀리면 홍탱크가 나타나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는다.(홍탱크의 등장)
- ⑦ 홍탱크는 유세아와 함께 아이들을 제 편으로 만든다.(음실의 두목 유세아)

<오토바이의 등장 시퀀스>

- ⑧ 양짓담에도 오토바이라 별명이 붙은 소비연이 전학을 왔다.(오토바이의 등장)

<양속이 된 양짓담과 음실 마을 시퀀스>

- ⑨ 오토바이가 전학 온 첫날 홍탱크와 크게 싸운다.(홍탱크와 오토바이의 싸움)
- ⑩ 양짓담과 음실 아이들은 오토바이와 홍탱크로 인해 양속이 된다.(양속이 됨)

<근태의 이사 시퀀스>

- ⑪ 양짓담에 같이 살던 근태네 집이 음실 마을로 이사를 간다.(이사를 가는 근태)
- ⑫ 근태와 한판 붙으라는 오토바이의 명령으로 나는 불안하다.(불안해 하는 나)
- 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근태가 우리집으로 왔다.(양짓담으로 넘어 온 근태)

91) 오세영 외 9인, 『국어 1학년-1학기』, 해냄에듀, 2010.

<싸움 시퀀스>

⑭ 오토바이와 홍탱크는 근태와 내가 한판 붙으라고 명령한다.(두목들의 명령)

⑮ 나는 근태와 싸운다.(근태와 나의 싸움)

<화해 시퀀스>

⑯ 내가 코피를 흘리자 근태는 싸움을 멈춘다.(싸움을 멈춤)

⑰ 근태와 나는 두목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든다.(근태의 위엄)

⑱ 근태는 내 얼굴을 씻겨주며 우리 싸우지 말자고 말한다.(양짓담과 음실 마을의 화해)

이 작품에서 강자는 상대적으로 약자를 장악하려고 하고, 약자들은 여기에 휘말려들지만 약자들은 서로 힘을 합해 강자를 물리친다. 결국 약자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단결로 강자들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 구조를 보여준다.

나) 인물의 행동 특성

(1) 성태

성태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다. 여기서 평범하다는 것은 본능적 만족을 얻는데 사용되는 이드의 에너지가 적절한 때에 충족되어 에고, 슈퍼에고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성태의 에고는 사회를 이해하는 면이 많아서 슈퍼에고로의 이행도 쉽다. 자신의 본능을 시험하는 시험대에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기에 거부하려 하지만 자신에게 숨겨진 이드적 속성에 이끌려 추진되고 만다. 그러나 에고의 억제력으로 금방 멈추고, 근태의 따뜻한 마음에 동일시됨으로써 이드의 에너지가 에고로 재분배되는 역동적 에너지를 보여준다.

<그림 6> ‘성태’의 행동 특성

슈퍼에고				●		
에고	●		●			●
이드		●			●	
최소사건	③	⑫	⑭	⑮	⑯	⑰

③에서 성태는 육촌형인 근태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실 인식에 밝다는 점에서 에고적 성향을 보인다.

⑫에서부터 본격적인 사건의 진행과 함께 성태의 행동 특성도 나타난다. ④-⑪은 성태의 입장에서 자신과 근태, 양짓담과 음실의 사이가 왜 서먹서먹해졌는지 회상시제로 서술하고 있다. 성태는 ‘공부가 끝난 뒤에 술밭 뒤 공터로 오라는 오토바이의 명령’에 불안하다. 신경

증적 불안은 본능으로부터 오는 위험성이 인지될 때 일어난다. 즉, 이것은 자아의 억제력이 본능의 대상추진력을 막지 못하여 어떤 갑작스러운 충동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지 않는 까 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이다.⁹²⁾ 불안의 원천이 이드에 있다고 볼 때, 성태의 불안은 이드적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⑭에서 성태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현실 앞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

“그저께 근태가 너 집에 갔었지?”

오토바이가 뱀새 같은 눈으로 나를 보려보았다.

“응.”

어떻게 감히 거짓말을 하라?

“왜 왔었어?”

“아버지 심부름으로.”

“무슨 심부름?”

“족보 책을 가질러.”

“족보 책?”

“응, 장근태하고 나는 일가여.”

“인마, 그런 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 근태한테 무슨 말했니? 바른 대로 말해.”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건 거짓말이다. 근태가 탱크 욕을 하는 것만큼 많이는 못했지만 나도 오토바이 녀석을 욕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니 욕을 했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⁹³⁾

성태의 예고적 성향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당당함을 가졌지만, 혹시 있는 그대로 말함으로써 징벌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느낀다.

⑮는 갈등하는 성태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도덕적 내재화를 충실히 이뤘던 성태는 욕존형과 싸우면 안 된다는 양심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정말이지 싸우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상대가 근태 아닌가? 아버지가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왜 내가 욕존 형인 근태하고 싸워야 한단 말인가? 근태도 딱한 얼굴을 하고 나를 쳐다보았다.⁹⁴⁾

성태는 싸움의 쾌락원리와 욕존형이라는 현실원리를 적용하여 ‘나쁜 일’, ‘벌’ 등에 두려워

92)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61.

93) 오세영 외 9인, 앞의 책, pp.160~161.

94) 오세영 외 9인, 앞의 책, pp.161~162.

하는 슈퍼에고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⑯에서 성태는 급기야 육촌형 근태와 싸우고 만다. 자신을 짓누르는 권위체에 대한 두려움과 육촌형과 싸우면 안된다는 갈등은 불안감으로 발전한다.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태로부터 한 대 얻어맞자 이드적 욕구가 작동한다.

⑰에서 성태는 자신을 부르는 근태의 목소리에 그동안 이드 쪽으로 쏠리던 에너지가 멈추면서 행동도 정지한다.

나는 쓰러진 근태의 몸뚱이를 타고 앉았다. …(중략)… 근태가 밑에 깔린 채 주먹으로 내 콧등을 쳤다. 금방 코피가 터졌다. 나는 주르르 흐르는 내 코피가 근태의 목덜미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근태가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성태야!”

나는 펄쩍 정신이 들었다. 근태가 계속 내 이름을 불러 댔다.

“그만, 그만 해! 성태야!”

나는 손을 멈추고 옆으로 비켜났다.

(……)

홍탱크의 주먹이 날아와 근태의 턱을 후려쳤다. 그때 나는 어느새 두 손에 큼지막한 돌을 들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는 조금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탱크의 주먹에 쓰러진 내 육촌 형 근태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던 것 같다.

“야잇! 이 새끼들, 덤벼!”

나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탱크에게 덤벼들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내 팔을 움켜잡았다.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이었던 것 같다.⁹⁵⁾

성태의 이드가 에고를 침범하였지만 에고의 방어로 싸움이 멈추게 되었다. 또한, 성태의 본능 충족을 위한 대상은 근태가 아니라, 홍탱크와 오토바이였음을 에고가 깨달게 해주었다. 성태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실제 객관적 세계와 일치시키는 이차적 과정이 일어났고, 대상에 대한 생각과 대상 자체가 맞아 떨어지는 동일시도 이루게 되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원망충족 대신에 논리적 사고가 자리 잡았다. 에고가 발달하면 할수록 에고의 에너지는 성격의 통합을 이루려는 데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성태는 에고적 행동 특성과 슈퍼에고적, 이드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성태의 행동 특성 중 자아적 성향이 지배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에고적 성격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2) 근태

95) 오세영 외 9인, 앞의 책, pp.163~164.

근태는 성태와 달리 무능한 부모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났다. 자신이 일을 해야만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슈퍼에고적 성향이 아주 강하다. 학교가 두 편으로 나누어진 일에도 개입되지 않으려고 한다. 근태는 옛날 성태와 자주 싸웠던 그만큼 싸우려 하지만 덤벼드는 성태의 태도에 당황해한다. 근태의 침착한 에고적 성향은 싸움을 멈추게 하고, 또 다른 이상을 꿈꾸는 슈퍼에고적 성격으로 발전한다.

<그림 7> ‘근태’의 행동 특성

슈퍼에고	●	●				●
에고			●	●	●	
이드						
최소사건	②	⑪	⑬	⑯	⑰	⑱

②에서 근태는 “남들은 놀러 가느라고 야단인데 공사판으로 간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행동을 제어하고 부모의 도덕적 규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슈퍼에고적 성향을 보여준다.

⑪에서도 근태는 이사를 가고 싶지 않지만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안된다’는 도덕적 규제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슈퍼에고적 성향의 행동이 그려진다.

⑬은 근태의 침착한 행위와 그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다. 친구들은 오토바이와 홍탱크가 무서워 말조심, 몸조심을 하지만, 근태는 그렇지 않다. 홍탱크와 오토바이로 인해 음식과 양짓담으로 나누어진 마을에 당당하게 양짓담으로 넘어 온 행동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나는 근태가 다른 아이들 눈에 들킬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해했다. 그렇지만 근태는 나보다 훨씬 침착했다.

“염려 마! 아무도 모르게 왔으니깐. 또 개들이 알면 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음식 높덜 보기 싫어 죽겠어! 탱크 그 자식 아주 나쁜 놈이여…….”

근태는 한참 동안 음식 아이들 욕을 늘어놓은 다음, 족보 책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⁹⁶⁾

근태는 현실을 직시하고 본능 쪽으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다. 마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철저히 구분할 수 있어 쉽게 좌절감과 불안감에 빠지지 않는다. 근태의 이러한 행동은 에고의 성향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⑯에서 근태는 성태와 싸움을 하지만 본능에 의한 행동은 아니다. 근태가 먼저 권투 선수

96) 오세영 외 9인, 앞의 책, p.160.

처럼 손을 들고 있는 모습과 성태를 먼저 때린 점에서 그의 논리적 사고로 인한 예고적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⑩에서 근태는 흥분하는 성태의 행동을 저지한다. 그리고 현실에 맞선다.

근태는 식식거리며, 언청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똑똑하게 말했다.

“난 안 싸워! 성태는 내 동생이여. 내가 왜 동생하고 싸우냐?”⁹⁷⁾

홍탱크와 오토바이의 존재를 두려워했던 성태와 달리 근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억울한 상황을 당당하게 말하는 예고적 성향을 보인다.

⑪은 근태와 성태의 화해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마을 간의 화해도 이뤄내고 있다.

근태는 맑은 개울물로, 엉겨 붙은 내 코피를 씻어 주며,

“됐어, 이제는 서로 안 싸워도 되는 거여. 우리가 푹푹 뭉치기만 하면 저 새끼덜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어.”

혼자서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가까운 숲 어디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⁹⁸⁾

근태는 ‘참이나 거짓이나’하는 것보다는 ‘선이나 악이나’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쏟는다. 홍탱크와 오토바이로 인해 학생들이 반으로 갈라지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싸우게 만드는 세상의 무가치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동생 성태를 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세상의 악에 대항해서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려고 한다.

근태의 예고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 자긍심은 슈퍼에고의 자아이상에서 발전되어 나왔다. 프로이트는 자아이상에 맞는 도덕적인 대상 선택에 동일시하게 되면 예고는 일종의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⁹⁹⁾고 하였다. 자긍심은 자아가 어떤 착한 일을 했을 경우 자아이상이 주는 상이다. 예컨대, 아이가 부모로부터 칭찬받는 것과 같은 감정이다. 근태는 세상의 악을 물리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긍심은 피 묻은 성태의 얼굴을 씻겨주는 것으로 드러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드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애’로 표현되는 슈퍼에고의 도덕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덕성은 성격의 역동을 일으키는 좌절감과 불안 등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볼 때, 근태는 슈퍼에고적 행동 특성과 예고적 성향이 골고루 함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근태는 예고적 성향과 슈퍼에고적 성격을 함께 지닌 양면적 성격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97) 오세영 외 9인, 앞의 책, p.164.

98) 오세영 외 9인, 앞의 책, p.165.

99)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40.

5) 「몽실언니」 100)

가) 텍스트의 의미망 분절과 요약

「몽실언니」는 권정생이 1984년 발표한 작품이다. 현재, 소년소설의 한 갈래로 출판되고 있다. 교과서에는 부분만 게재되어 있어 원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 작품은 6·25전쟁이라는 시대의 혼란 속에서 주인공 몽실을 통해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23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한 뒤 12개의 시퀀스로 다시 묶을 수 있다.

<어머니의 재혼 시퀀스>

① 몽실은 엄마와 함께 새아버지 집으로 온다.(새아버지 집에 옴)

② 몽실은 새아버지로 인해 다리를 다친다.(다리를 다침)

<아버지와의 만남 시퀀스>

③ 몽실은 고모가 찾아와서 다시 친아버지 집으로 간다.(어머니와의 헤어짐)

<새어머니 복춘댁 시퀀스>

④ 아버지도 재혼하여 새어머니로 복춘댁을 들인다.(새어머니 복춘댁)

⑤ 몽실은 새어머니가 해준 설웃을 입고 복춘댁에 대한 정을 느낀다.(새어머니에 대한 정)

⑥ 몽실은 새어머니와 야학에 다닌다.(야학에 다니는 몽실)

⑦ 새어머니로부터 병을 앓고 있다는 고백을 들은 뒤 더욱 안쓰럽다.(새어머니의 슬픔)

<난남이의 탄생 시퀀스>

⑧ 아버지가 전쟁터에 끌려간 후, 새어머니는 난남이를 낳자마자 죽는다.(난남이의 탄생과 새어머니의 죽음)

<전쟁의 아픔 시퀀스>

⑨ 몽실은 전쟁과 가난, 외로움을 느낄 때, 여자 인민군을 만난다.(여자 인민군)

⑩ 몽실은 여자 인민군으로부터 북한 인민군이나 남한 의용군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착한 사람, 나쁜 사람)

⑪ 몽실은 꿈속에서 친어머니와 새어머니를 만난다.(꿈속의 어머니)

⑫ 몽실은 고모네 집을 찾아갔지만 불타고 없다.(찾아간 개암나무골)

<친어머니와의 생활 시퀀스>

⑬ 몽실은 친어머니가 살고 있는 땃골로 간다.(땃골에서의 생활)

⑭ 새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몽실은 난남이와 함께 노루실로 돌아온다.(어머니와 헤어짐)

100) ① 김형철 외 18인, 『국어 1학년-2학기』, 교학사, 2010.

② 권정생, 『몽실언니』, 창비, 2007.

<식모살이 생활 시퀀스>

⑮ 몽실은 최씨 집으로 식모살이를 하러 간다.(식모살이 생활)

⑯ 식모살이 몇 년 만에 아버지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돌아온다.(돌아온 아버지)

<구걸하는 생활 시퀀스>

⑰ 몽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구걸을 하러 다닌다.(구걸하는 몽실)

<친어머니의 죽음 시퀀스>

⑱ 몽실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댕골로 갔지만 친어머니는 죽어 있다.(어머니의 죽음)

⑲ 몽실은 친어머니가 낳은 영득이와 영순이를 보기 위해 댕골로 갔지만 그곳에 새어머니가 생긴 것을 보고 그냥 돌아온다.(영득이와 영순이)

<아버지의 죽음 시퀀스>

⑳ 몽실은 아버지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멀리 자선병원까지 찾아간다.(아버지의 다리)

㉑ 아버지는 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 죽는다.(아버지의 죽음)

<이별 시퀀스>

㉒ 몽실은 난남이를 부잣집 양딸로 보내고 혼자 남는다.(혼자 남은 몽실)

<세월의 흐름 시퀀스>

㉓ 삼십년 후, 곱추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도 낳은 몽실은, 난남이와 영득이, 영순이와 연락하며 지낸다.(삼십년 후의 모습)

이 작품은 어린 나이에도 곳곳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한 소시민적 영웅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퀀스는 몽실이가 직면한 어려움을 묘사하고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조직되어 있다.

나) 인물의 행동 특성

(1) 몽실

몽실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밥을 하고, 갓난아기를 봐야 했다. 어리다고 해서 여느 집 아이들처럼 놀 수도 없었다. 때로는 본능적 성향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삶의 지침이 되는 동일시와 교육에 의해 내재화된 슈퍼에고적 에너지로 극복한다. 몽실의 슈퍼에고적 성향은 복춘댁이 낳은 아기를 혼자 키우고,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내는 강한 에고적 성향으로 역동한다. 몽실의 에고는 강하며,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것은 사치처럼 보는 까닭에 이드적 성향은 미미하다.

<그림 8> ‘몽실’의 행동 특성

슈퍼에고		●		●	●						
에고			●			●	●	●	●	●	●
이드	●										
최소사건	①	②	③	⑥	⑦	⑧	⑫	⑭	⑰	⑳	㉒

①의 몽실은 지극히 평범한 일곱 살 아이이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물어보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다. 이런 행동은 어떤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이드적 성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②에서 몽실은 새아버지로 인해 다리를 다친다. 그러나 그 아픔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 ‘새아버지’라는 권위체로부터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몽실아, 참아라. 시끄럽게 굴면 아버지가 또 야단을 칠 거다.”

몽실은 울음을 삼키며 애써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찢어질 듯한 아픔은 몽실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어머니 가슴에 의지한 채 줄곧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죽여 울었다.¹⁰¹⁾

몽실은 부모들의 도덕적 기준에 스스로를 동일시하며 슈퍼에고적 에너지를 축적한다.

③의 몽실은 새로운 대상추진력을 향해 간다. 친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함으로써, 몽실의 에고 에너지는 욕구 충족을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는데 사용한다.

⑥에서 몽실은 부모가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통해 슈퍼에고적 에너지를 받는다.

“길을 가는 나그네는 참 고달픕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가파르고 험한 산길도 있고, 때로는 강을 건너고 위험한 벼랑길도 가야 됩니다. 그 고달픈 길에서 어떤 때는 무서운 짐승도 만나고 날강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맑은 날씨에 구름이 끼고 소나기도 쏟아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 깊은 산속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나그네길을 우리는 어떻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누구나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¹⁰²⁾

몽실은 야학 선생님께서 ‘인생’을 배우는데 이는 본능적 충동을 억제, 조절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해칠지도 모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⑦에서 몽실은 새어머니에게서 도덕적 권위의 모델을 찾는다.

101) 권정생, 앞의 책, p.35.

102) 권정생, 앞의 책, p.76.

“몽실은 자주 울 때가 많은데 이젠 울지 말고 참도록 해요. 나도 많이 울었지.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매일 울었으니까 어떠했겠니? 그러나 그게 부질없었어. 그렇게 울지 말고 입술을 깨물었으면 난 좀더 건강할 수도 있었을 거야. 우는 건 참 못한 짓이야.”

(……)

그날 이후 몽실은 딴사람처럼 되었다.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¹⁰³⁾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마음속으로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삼게 된다. 이렇듯 부모의 권위를 내재화시키면 아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행동도 제어하게 되고, 그 결과로써 부모 또는 내재화된 권위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한다.¹⁰⁴⁾ 즉, 몽실은 새어머니에게서 도덕적 기준을 배우게 된다.

⑧의 몽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 짓는 예고적 성향의 행동을 보인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상상과 현실을 구분 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몽실은 주관과 객관적 세계를 구분 짓는 방법을 일찍 배웠다. 물론 유전적으로 내적인 정신현상과 외적인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잠재력도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개발된 것이다.

“먹을 쌀이 있나?”

장굴 할머니가 방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우리 몽실이가 쌀하고 미역 사 놓았어요.”

북촌댁이 말했다.

“몽실이가?”

남주네 어머니와 장굴 할머니가 함께 몽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계실 때 여쭙었더니 주인집 쌀을 얻어 주셨어요.”

몽실은 보통이에 깊이 감춰 뒀던 쌀과 미역을 내놓았다.

“에그, 기특도 하구나, 정말 기특하구나.”¹⁰⁵⁾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나지 못한 몽실은 삶 자체가 훈련이었다.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 몽실의 자아추진력은 이드의 일차적 과정을 대신하여 빠른 속도로 발달한다. 이렇듯, 이드에서 예고로 에너지가 재분배되는 성격의 역동을 몽실은 아주 어린 시절에 겪게 된 것이다.

몽실의 강한 예고적 성향은 ⑫-⑳까지 이어진다. 몽실은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판단하고

103) 권정생, 앞의 책, p.92.

104)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22.

105) 권정생, 앞의 책, p.101.

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가난으로 인해 ⑫에서 몽실은 고모집을 찾아가지만 고모집은 불에 타서 없고 고모는 죽었다. 그러나 몽실은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친어머니가 있는 댁으로 가기로 한다.

⑭에서도 몽실은 친어머니와 또다시 헤어지지만 침착하게 행동한다.

⑰에서 몽실은 가난으로 인해 먹을 것을 구걸하러 다닌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고, 동생 난남이는 배고프다고 보채는 현실 앞에 무엇이랴도 해야 했다. 이러한 몽실의 예고적 성향은 지각, 집중, 기억, 판단, 분별 등의 심리작용을 발달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⑳의 몽실 또한 강한 예고적 성향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아버지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멀리 병원까지 찾아 가고 그곳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열심히 간호를 한다.

㉒에서 몽실은 더욱 강해질 것을 다짐한다.

‘그래, 난 앞으로도 이 절름발이 다리로 버틸 거야. 영득이랑 영순이랑 그리고 난남이를 보살펴야 해. 영득이, 영순이를 찾아갈 거야. 꼭 찾아갈 거야.’¹⁰⁶⁾

몽실은 애지중지 키우던 난남이를 입양 보내면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동안 모든 고통을 이겨낸 몽실의 예고적 성향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는 행동을 취한다.

전쟁과 가난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몽실은 때때로 불안을 경험하지만, 몽실이 느끼는 불안감은 내부 욕구의 좌절에서 오는 불안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세계의 위협을 인지했을 때 받는 현실적 불안이다. 현실적 불안은 누구나 느끼는 위험물의 존재로 인해 불안해진다. 몽실은 전쟁과 가난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 현실적 불안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더 큰 위협이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몽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예고적 성격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실은 작품 초반에는 슈퍼예고적 성향을 보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예고적 성향이 지배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예고적 성격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6) 「명혜」¹⁰⁷⁾

가) 텍스트의 의미망 분절과 요약

「명혜」는 김소연이 2007년 발표한 장편동화이다. 이 작품은 ‘명혜’라는 인물을 통해 구한말 신학문을 배우고 자아를 찾기 위한 한 여성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4개의 최

106) 권정생, 앞의 책, p.274.

107) ① 노미숙 외 10인, 『국어 1학년-2학기』, 천재교육, 2010.

② 김소연, 『명혜』, 창비, 2007.

소사건으로 요약한 뒤, 6개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다.

<사촌언니 결혼식 시퀀스>

① 명혜는 나이가 차면 무조건 결혼시키려는 어른들의 생각이 탐탁치않다.(사촌언니 결혼식)

<여성의 삶 시퀀스>

② 명혜는 동경에 유학 중인 오빠(명규)의 도움으로 아버지로부터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허락받는다.(허락을 받아냄)

③ 자신의 집, 애보개로 들어온 연이의 아픈 소식을 듣고, 명혜의 마음은 편치 않다.(아픈 연이)

<여학교 입학 시퀀스>

④ 여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은 명혜는 오빠와 함께 자신이 지낼 집과 학교를 둘러보기 위해 서울로 떠난다.(서울 구경)

⑤ 종로를 둘러보던 명혜는 일본 순사로부터 도둑 누명을 쓰게 될 때, 낙경이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도둑 누명)

⑥ 명혜는 여자도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친구 낙경이로부터 확인한다.(친구 백낙경)

<꿈 찾기 시퀀스>

⑦ 명혜는 하루하루의 학교생활을 즐겁게 보낸다.(학교생활)

⑧ 병원에서 통역 봉사를 하던 명혜는 신 선생님께서 의사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는다.(병원 통역 봉사)

⑨ 명혜는 아버지의 결혼 권유에 의사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한다.(아버지와의 갈등)

<독립 운동 시퀀스>

⑩ 명혜는 3·1운동을 위해 태극기를 몰래 만든다.(태극기를 만들)

⑪ 명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총에 맞아 죽는다.(명규의 죽음)

⑫ 명혜는 의사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만 신 선생님의 도움으로 힘을 낸다.(의사의 꿈)

<의사의 꿈 시퀀스>

⑬ 명혜는 어머니의 지지로 유학의 길을 추진한다.(어머니의 희망)

⑭ 미국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은 명혜는 아버지의 허락도 받고 유학길에 오른다.(유학길에 오르는 명혜)

이 작품의 시퀀스는 전통과 구습 속에서 자아를 찾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전통을 고집하는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도 주인공 명혜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부모와의 화해를 이끌어내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다.

나) 인물의 행동 특성

(1) 명혜

명혜는 양반집 자녀로 태어나서 일찍 결혼하라는 부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한다. 사회의 전통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는 자아가 강한 여성이다. 때로,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도덕적 규제가 내재화 된 이유로 슈퍼에고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빠른 추진력은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자아와 슈퍼에고의 갈등을 일으키며 멈칫한다. 이 때, 어머니의 인정과 아버지의 격려로 명혜는 자신의 자아를 다시 찾게 된다.

<그림 9> ‘명혜’의 행동 특성

슈퍼에고			●		●			●		●	
에고	●			●		●	●		●		●
이드											
최소사건	②	③	⑤	⑥	⑧	⑨	⑩	⑫	⑬	⑭	

②에서 명혜는 ‘얌전히 정해 주는 대로 시집이나 가라’는 송 참판(아버지)의 말에 ‘제게는 시집보다 공부가 더 급하다’는 말로 반기를 들며 에고적 성향을 보인다.

③에서 명혜는 산후풍에 걸려 친정에 와 있는 연이의 모습을 보며 측은한 마음을 갖는다. 이는 도덕적 양심의 슈퍼에고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⑤는 명혜의 침착한 행동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흥분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물러서지도 않는다. 명혜는 잘못된 것이 없음에 당당한 에고적 성향의 행동을 한다.

“아무리 도둑 누명을 썼다고 하나 대낮 길 한복판에서 양갓집 처자가 장옷을 함부로 벗을 수는 없소. 벗길 테면 벗겨 보시오.”¹⁰⁸⁾

⑥에서 명혜는 여자도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이상을 갖으며 슈퍼에고적 성향을 보인다. ⑧의 명혜는 ‘수술’하는 것을 봄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대해 알게 된다. 사람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세계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그는 이렇게 향상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를 더욱 잘 요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108) 김소연, 앞의 책, p.76.

위치를 접하게 된다.¹⁰⁹⁾ 의사 공부를 더 해보라는 신 선생님의 권유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를 더 잘 알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즉, 명혜의 잘 학습된 자아로 인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명혜는 ⑨에서 좌절을 경험한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부모의 반대로 인해 이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정 안 되면 내 힘으로라도 할 테니 걱정 마라.”

명혜는 무 자르듯 한마디 던지고는 돌아누워 버렸다. 명혜는 안 된다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하면 할수록 오기가 치밀어 올랐다.

‘혼자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공부할 거야. 그러지 않고는……’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만 같았다.

칠혹같이 어두운 방 안에 명혜의 또랑또랑한 두 눈만 빛을 내고 있었다.¹¹⁰⁾

아버지와는 대면에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과 그 뜻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는 예고적 성향으로 읽을 수 있다.

⑩의 명혜는 자아이상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며 높은 뜻을 추구한다. 나라의 해방을 위해 여자, 남자가 따로 없다는 명선의 이상은 3·1운동을 위해 태극기를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낙경과 명혜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하실에서 나왔다. 종이와 물감이 떨어져 더는 그리고 싶어 도 그럴 수가 없었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태극기 더미를 보자 명혜는 새로 태어난 듯 심장이 힘차게 뛰었다.¹¹¹⁾

명혜는 ‘선이나 악이나’ 하는 문제에 관심을 쏟으며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는 슈퍼에고적 성향을 보인다.

⑫의 명혜는 불안하다. 3·1운동으로 오빠가 죽고, 친구 낙경이는 미국으로 떠나고, 자신은 누군가에 쫓기는 이 현실이 불안하고 두렵다. 또한, 의사로써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명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결국, ⑬에서 명혜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려 한다. 자신의 유학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오빠의 죽음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러므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자아의 추진력은 죽은 오빠를 위해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슈퍼에고의 억제력에 의해 멈추려고 한다.

109)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37.

110) 김소연, 앞의 책, p.146.

111) 김소연, 앞의 책, p.154.

그러나 ⑭에서 명혜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다시금 예고 추진력을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는데 에너지로 전이시킨다.

편지는 찢막한 글 몇 줄이 전부였다. 하지만 편지를 든 명혜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명혜라니, 아버님이 날 명혜라고 불러 주시다니.' 명혜는 가슴이 벅차올라 편지를 꼭 끌어안았다.¹¹²⁾

명혜는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 특별한 이름없이 '아기', '갓난이' 등으로 불렸던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다. 명혜는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불리는 것을 듣고 감격한다. 즉, 자신의 자아를 아버지께서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명혜는 예고와 슈퍼예고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진정한 '나'를 찾는다. 갈등이 빚어내는 결과는 성격의 발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명혜는 어려운 갈등을 겪어내면서 '성숙'이라는 성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때, 명혜는 예고적 행동 특성에 슈퍼예고적 성향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인물의 행동 특성은 예고적 성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예고적 성격의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

7) 「턱수염」¹¹³⁾

가) 텍스트의 의미망 분절과 요약

「턱수염」은 최나미가 2005년 『진휘 바이러스』에 발표한 작품이다. 주인공 승권은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반항적 행동으로 표출한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갈등은 정한 수순이다. 이 작품은 15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한 뒤, 6개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다.

<쫓겨난 우리 가족 시퀀스>

- ① 승권은 동네별로 하는 청소를 싫어한다.(동네별 청소를 싫어하는 승권)
- ② 언덕 꼭대기 낡은 주택으로 쫓겨난 우리 가족은 엄마도 아버지도 변했다.(쫓겨난 가족)

<효주에 대한 관심 시퀀스>

- ③ 개구멍으로 학교를 빠져나가다가 효주를 만난다.(효주를 만남)
- ④ 승권이는 효주와 지영이가 물어놓고 간 상자를 몰래 꺼내 본다.(효주를 좋아하는 나)

<나의 아버지와 효주의 아버지 시퀀스>

112) 김소연, 앞의 책, p.211.

113) 박영목 외 12인, 『국어 1학년-1학기』, 천재교육, 2010.

⑤ 승권이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는 아버지를 가진 효주가 부럽다.(효주의 아버지)

⑥ 나의 아버지와 효주의 아버지를 비교한다.(나의 아버지에 대한 불만)

<버스기사로 취직한 아버지 시퀀스>

⑦ 아버지가 마을버스 기사로 취직했지만 기쁘지 않다.(버스기사로 취직한 아버지)

⑧ 차비를 내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을 승권이는 무시한다.(아버지의 말을 무시함)

⑨ 아버지로부터 손찌검을 당했지만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손찌검을 당한 승권이)

<승권의 분노 시퀀스>

⑩ 효주의 상자를 빼앗아 일기장을 읽는 준호를 승권이가 때린다.(준호를 때린 승권)

⑪ 승권이는 때린 것을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해한다.(답답한 승권)

<화해 시퀀스>

⑫ 화가 난 준호 엄마에게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다.(무릎 꿇는 아버지)

⑬ 사과를 하며 연거푸 절을 하는 아버지를 보며 승권이는 눈물을 흘린다.(승권의 눈물)

⑭ 승권은 주무시는 아버지를 면도해드린다.(면도를 하는 승권)

⑮ 반쪽만 깎인 수염이지만 아버지는 흐뭇해한다.(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주인공 승권은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이 가정과 학교에 표출되며 갈등 양상을 보인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은 곧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자 승권의 행동은 안정을 찾는다.

나) 인물의 행동 특성

(1) 승권(나)

승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낡은 주택에 살기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가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을 마시고 그 일로 인해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봐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그것은 곧 어른들로 비치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었고, 아무리 잘해주는 아버지라도 언제 또 변할지 모른다는 신뢰감 상실로 반항적 행동을 한다. 승권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자기도 모르게 친구를 때리는 이드적 성격을 보이고는 괴로워한다. 아버지가 친구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는다. 그 후 아버지의 턱수염을 강요가 아닌 진심으로 깎아주고 건전한 자아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승권’의 행동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0> ‘승권’의 행동 특성

슈퍼예고										●		●	
예고	●	●	●		●		●				●		●
이드				●		●		●					
최소사건	②	③	④	⑥	⑦	⑧	⑨	⑩	⑪	⑬	⑭	⑮	

②는 승권의 가정 상황과 더불어 자신의 심리를 드러낸다. 승권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잃으면서’ 그동안 ‘내가 잘 모르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을 시작으로 경험하지 못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의욕 상실에서 오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행동들,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엄마의 모습에 승권은 화가 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예고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에서 승권은 예고의 현실원리에 따라 학교를 빠져나가는 곳으로 ‘개구멍’을 선택하였다.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개구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물어물하다 형들한테 잡혀 늦게까지 심부름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④에서도 승권의 논리적 사고가 나타난다. 효주와 지영이가 몰래 묻고 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그 곳을 열어보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승권은 “효주와 지영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비밀을 어쩐지 지켜 주고 싶었다.”는 심정을 내비치며 욕구를 억제한다. 이는 예고의 판단에 의한 행동으로 보인다.

⑥에서 승권은 의도적으로 반항한다. 효주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를 비교하다 보니 내 아버지가 싫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동을 취한다. 이는 이드적 행동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⑦에서 아버지는 마을버스 기사가 된다. 좋아하는 엄마와 달리 승권은 기쁘지 않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승권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억제하는 예고적 성향을 보인다.

⑧에서 승권은 이드적 성향을 보인다. 승권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차비를 내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절제했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낸다.

나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준호 차비까지 대신 내고 버스 안으로 쑥 들어갔다. 내일 아침에는 걸어서 학교에 와야 할 것이다.

“야, 너 아는 사람이나? 차비 안 내도 된다는데 왜 내고 그래?”

준호는 아버지와 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뭘 자꾸 따져. 차 탔으면 차비 내는 게 당연하지. 마을버스 공짜로 타서 부자 될래?”

내가 눈을 부릅뜨며 큰 소리로 말하자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다.¹¹⁴⁾

114) 박영목 외 12인, 앞의 책, p.64.

승권은 이드에 유입된 에너지로 유지한 원망충족의 행위를 일으킨다. 아버지와 동일시되 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승권은 그것에 대한 좌절감으로 거꾸로 행동하는 반동형성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⑨의 행동 결과로 승권은 아버지로부터 뺨을 맞는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기 보다는 ‘나가고 싶다’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엄마가 바라는 게 뭔지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예전처럼 아버지를 좋아할 수 없을 것 같다. 준호 앞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한 건 잘못이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처럼 창피해서만은 아니었다. 나는 그간의 일을 다 잊어버린 듯 웃고 있는 아버지가 미웠다. 우리가 나머지 동네로 쫓겨 온 이유도, 우리 앞에서는 씩씩해 보여도 엄마도 밤마다 끄꿍 대는 이유도 다 아버지 때문이다. 그동안 아버지가 한 거라고는 술 마시고 주정한 게 전부였다. 아버지가 임시로 얻었다는 일자리마저 잃으면 예전처럼 돌아갈 게 뻔하다. 나는 희망이란 걸 선부르게 갖고 싶지 않다. 아버지가 나였어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¹¹⁵⁾

승권은 아버지와 동일시를 이루는데 실패하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만을 키워내며 비현실적인 사고를 한다.

⑩에서 승권은 마침내 친구를 때리는 이드적 행동을 보인다. 효주의 일기장을 갖고 놀리는 친구 준호의 행동에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본능적인 행위를 한다.

⑪에서 승권은 ⑩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음에 안타까워한다. 또한, 질책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느낀다. 이는 슈퍼에고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⑬에 나타난 아버지의 행동으로 승권은 자아의 안정을 이룬다.

고개를 들자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고개를 가웃하더니 내게 꾸벅 인사를 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나서야. 다 내 잘못입니다. 못난 아버지가 바로 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연거푸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나는 때리는 아버지도 싫지만 지금 같은 아버지도 못 견디게 싫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왔다.¹¹⁶⁾

아버지의 행동은 승권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으며, 그동안 이드로 향하고 있던 에너지를 에고로 역동하게 한다. 또한, 아버지의 뜻밖의 행동은 승권이 찾아 헤맨 영상이었으며 따라

115) 박영목 외 12인, 앞의 책, p.66.

116) 박영목 외 12인, 앞의 책, pp.73~74.

서 생각과 대상이 일치되는 동일시를 마침내 이뤘음을 깨닫게 해준다. 주관과 객관을 구분할 수 있는 동일시를 통해 객관적 세계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승권은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는 예고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⑭에서 승권은 아버지를 위해 면도를 해준다. 주요한 심리적 보상은 말이나 표정 등으로 보여주는 인정(認定)이다. 어떤 행동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¹¹⁷⁾ 따라서 아버지의 행위는 승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써 도덕적 내재화를 이루게 된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다. 그날 아버지를 보고도 모른 척한 건 잘못했다고, 또 오늘 나 때문에 벌어진 일도 정말 죄송하다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그런 말은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한 가지쯤은 하고 싶었다.

나는 아버지의 면도기를 꺼내 왔다.¹¹⁸⁾

승권은 아버지로부터 도덕적 내재화를 이루면서 권위체로부터 칭찬받기 바라는 마음에 면도를 해준다.

⑮의 승권은 그 전과 다른 긍정적인 예고적 성향을 보인다. 면도가 잘 되지 않은 것을 느낀 승권은 아버지를 향해 ‘머쓱하게’ 마스크를 내민다. 그 전의 반항적인 마음이 아니다. 동일시를 통해 본능의 충족보다는 지각, 판단, 이성 등의 심리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아 발달을 이루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 승권은 예고적 특성과 이드, 슈퍼에고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고적 성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예고적 성격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8) 「너도 하늘말나리야」¹¹⁹⁾

가) 텍스트의 의미망 분절과 요약

「너도 하늘말나리야」는 이금이가 1999년 발표한 장편동화이다. 이 작품은 ‘미르’와 ‘사회’, ‘바우’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여 하나의 상황을 놓고 각각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바우 이야기’의 일부만을 싣고 있어,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요약을 제시하였다.

달밭으로 미르가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는 이 작품은 ‘미르 이야기’, ‘사회 이야기’, ‘바우 이야기’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총 20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한 뒤 12개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다.

117)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p.122~123.

118) 박영목 외 12인, 앞의 책, p.74.

119) ① 이삼형 외 8, 『국어 1학년-1학기』, 도서출판 디딤돌, 2010.

② 이금이, 『너도 하늘말나리야』, 푸른책들, 2007.

<미르 이야기-달밭으로의 이사 시퀀스>

- ① 미르는 아빠와 이혼한 엄마를 따라 달밭으로 이사를 온다.(달밭으로 이사 옴)
- ② 달밭보건소 소장으로 온 엄마를 위해 ‘바우 아버지’라는 분이 도와준다.(바우 아버지)

<미르 이야기- 달밭의 아이들 시퀀스>

- ③ 미르는 진료소 밖에 나가 동네와 자기가 다닐 학교를 둘러본다.(달밭의 아이들)
- ④ 미르는 어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바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바우와 소희)
- ⑤ 미르는 소희로부터 바우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말을 하지 않는 바우)

<소희 이야기-미르와 바우 시퀀스>

- ⑥ 소희는 미르가 자신처럼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소희의 일기장)

<소희 이야기-할머니와의 생활 시퀀스>

- ⑦ 할머니와 둘이 사는 소희는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란다.(소희와 할머니)
- ⑧ 소희는 아픈 할머니를 위해 정성스레 진찰해주는 소장님(미르 어머니)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소장님의 진찰)

<소희 이야기-답답한 심정 시퀀스>

- ⑨ 학교 수업시간, 같은 반 친구 미정이와 미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소희는 통쾌함을 느낀다.(미르의 싸움)
- ⑩ 소희는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모내기를 해주고 있는 바우 아버지에게 국수를 삶아다 준다.(소희의 마음)

<소희 이야기-미르의 슬픔 시퀀스>

- ⑪ 소희는 아빠가 재혼한다는 소식에 슬퍼하는 미르를 본다.(미르의 슬픔)

<바우 이야기-엄마의 죽음 시퀀스>

- ⑫ 바우는 자신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의 통로였던 엄마 부재의 현실을 실감했기 때문이다.(바우의 함구원인)

<바우 이야기-미르와의 만남 시퀀스>

- ⑬ 바우는 미르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미르와의 만남)

<바우 이야기-엄마와의 대화 시퀀스>

- ⑭ 바우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엄마에 대한 그리움)
- ⑮ 그림을 좋아하는 바우는 하늘말나리아 들꽃을 그린다.(소희와 앓은 하늘말나리아)

<바우 이야기-바우의 충격 시퀀스>

- ⑯ 바우는 아버지가 산 장미꽃이 미르네 집에 있는 것을 충격을 받는다.(바우의 충격)
- ⑰ 바우는 소희의 말에 위로는 받지만 새로운 ‘엄마’가 생긴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바우의 답답한 심정)

<어른들의 세계 시퀀스>

⑱ 미르는 엄마와의 대화 속에서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한다.(엄마에 대한 이해)

⑲ 미르는 산모의 고통을 본다.(산모의 고통)

<이별과 희망의 시퀀스>

⑳ 미르는 할머니의 죽음으로 마을을 떠나게 된 소희에게 선물을 준다.(소희의 떠남)

㉑ 소희가 떠나는 날, 바우는 하늘말나리아 그림을 선물한다.(우리의 하늘말나리아)

이 작품의 시퀀스는 미르와 소희, 바우 세 명의 인물이 각기 경험하는 사건에 따라 전개되며 내가 속한 가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통합된다.

나) 인물의 행동 특성

(1) 미르

미르는 자신과 아빠를 갈라놓은 원인이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반항적으로 대한다. 엄마의 말투, 외모, 행동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드적 행동을 보인다. 자신의 삶을 감추며 사는 예고적 성격은 본능의 추진력에 밀려 이드적 행동을 자주 보인다. 그러나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경험하면서, 엄마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되고, 건전한 자아상을 추구하는 예고적 성격으로 발전한다.

<그림 11> ‘미르’의 행동 특성

슈퍼예고									●	●	
예고			●	●			●				●
이드	●	●			●	●					
최소사건	①	②	③	④	⑨	⑪	⑬	⑮	⑱	⑲	⑳

①에서 미르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인다.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내 기분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반항적인 심리는 이드적 행동의 에너지를 함유한다.

미르의 본능적 욕구는 ②에도 이어진다. 미르는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원인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과 아빠와의 사이를 엄마가 갈라놓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어떤 이성이나 논리법칙이 아닌 엄마를 괴롭히고자 하는 본능의 쾌락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이렇게 거지 같은 별장도 다 있어? 그리고 아빠도 없잖아!”

미르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 미르는 쿵쾅거리며 자신의 방 앞으로 갔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

었다. 네가 날 싫어한다면 나 역시 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방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¹²⁰⁾

미르의 엄마에 대한 원망은 어떤 생각도 없이 엄마를 괴롭히고 싶다는 마음만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드적 성향을 보인다.

③의 미르는 아빠와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제시키는 행동을 취한다.

④에서 미르는 현실을 부인하는 성향을 보인다. ‘바우’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싫어. 누가 그깟 애들이랑 친구하고 싶대?”라는 말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아를 방어하고 있다.

미르의 미숙한 자아는 ⑨에서 이드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자아의 억제력은 이드의 추진력에 밀려 급기야 싸움까지 일으킨다.

“첿, 시골 학교 반장 주제에 잘난 척은.”

미르는 조롱이 가득 담긴 웃음을 입가에 담고 말했다. 소희의 얼굴이 싸늘해졌다.

“뭘? 시골 학교? 야, 그러는 넌 이 학교 안 다니냐?”

소희보다 먼저 미정이가 손으로 미르 가슴계를 세게 떠밀었다. 갑작스런 기습에 미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다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 벌떡 일어난 미르가 미정이에게 달려들더니 뺨을 올려붙였다.

이드의 성격적 특징은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에너지가 쉽게 전이된다는 사실이다. 미르는 엄마에 대한 불만스런 행동을 친구에게 쉽게 전이시키는 이드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드적 성격의 충동 욕구는 미르의 합리적 사고를 방해한다.

⑪의 미르는 아빠의 재혼이라는 사건에 옆에 누가 있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없이 내몰리는 행동을 취한다. 이때의 불안은 너무 커서 예고나 슈퍼에고로도 제지가 불가능하다. 오직 이드의 요구에 따를 뿐이다.

⑫에서 미르는 안정된 예고적 성향을 보인다. 자신의 아픈 상처를 들어주고 함께 있어준 소희와 바우를 집에 초대하는 여유로운 모습과 말을 하는 바우를 향해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⑬에서 미르는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슈퍼에고적 성향을 갖게 된다.

엄마의 말은 미르의 가슴에 출렁, 하고 떨어져 물무너를 만들었다. 엄마이기 전에 한 여성, 한 인간? 우리 엄마이기 전에 한 여성, 한 인간이라구? 엄마가 모녀라는 관계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자르는 느낌이 들어 서운했지만, 엄마가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은 것이 기분 좋았다. 앞으로

120) 이금이, 앞의 책, p.33.

예전처럼 엄마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다.¹²¹⁾

미르는 엄마의 도덕적 가치가 내면화 된 이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아빠의 재혼과 엄마와 배우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이해한다.

①9에서 미르는 또한번 도덕적 가치를 경험한다.

엄, 엄, 하며 작은아이가 미르에게 매달렸다. 큰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미르를 말뚱말뚱 쳐다보았다. 마지못해 작은아이를 안았는데 품에 들어온 아이의 몽실몽실한 느낌이 좋았다. 미르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큰아기도 샘을 부리며 미르에게 매달렸다. 미르는 그 아이도 끌어안았다. 작은아이가 제 언니를 밀쳐 내려 했다. 이제 아이들은 엄마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미르를 독차지하려 다투고 있었다.

두 아이를 품에 안은 미르는 그 기분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다. 가슴이 팍 찬 것 같다고 해야 할까. 따뜻한 물결이 마음의 기슭을 넘실대는 느낌이었다.¹²²⁾

산모의 고통과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미르는 자아이상을 느끼게 된다.

②0에서 미르는 성숙한 예고의 성향을 보인다. 떠나는 소회를 위해 선물도 주고 안아주는 행동은 그동안의 모든 불안을 이겨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미르는 친구들의 우정, 엄마와의 솔직한 대화, 산모의 고통, 아이들에 대한 정을 통해 도덕적인 대상선택에 동일시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로써 자아는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긍정적인 예고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미르는 이드적 행동 특성과 예고, 슈퍼예고적 성향을 복합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드적 성향과 예고적 성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양면적 성격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2) 소회

소회는 할머니와 단 둘이서 산다. 소회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재혼을 했다.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슬픈지도 모르는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 따라서 자신의 본능과 의지를 발산하기 보다는 나쁜 일을 하면 안된다는 도덕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슈퍼예고적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소회가 보이고 있는 슈퍼예고적 성향은 자아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소회는 두 개의 일기장 중 자기 속마음을 적는 일기장에서 솔직한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사회 안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억압하고 있을 뿐, 자신의 본능적 욕구와 동일시를 이루는 순간 자아추진력은 발휘

121) 이금이, 앞의 책, p.203.

122) 이금이, 앞의 책, pp.209~210.

될 수 있다. 이에 소회가 보이고 있는 슈퍼에고적 성향은 무조건 나쁜 일을 하면 안된다는 성향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슈퍼에고적 성격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12> ‘소회’의 행동 특성

슈퍼에고	●	●	●	●		●	●		
에고								●	●
이드					●				
최소사건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⑰	⑳

소회는 ⑤-⑧까지 슈퍼에고적 성향을 보인다. ⑤의 소회는 예의바른 아이다. 어른에게도, 처음 본 친구에게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대한다.

⑥에서 소회는 자신에게 두 개의 일기장이 있음을 말한다. 하나는 검사받는 일기장, 또 하나는 비밀 일기장. 소회는 비밀 일기장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적어 놓는다. 자신의 욕구를 슈퍼에고적 성향으로 억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⑦에서도 소회는 슈퍼에고적 성향을 보인다. 할머니를 보살피 드려야 한다는 도덕적 기준이 강해서 어떠한 욕구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

⑧의 소회는 미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며 죄책감을 갖는다.

⑨에서 소회는 강한 슈퍼에고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도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심리를 드러낸다.

소회보다 먼저 미정이가 손으로 미르 가슴께를 세게 떠밀었다. 갑작스런 기습에 미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다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소회는 순간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미정이가 대신 해 준 것이 통쾌했다.

‘너 같은 앤 이런 꼴을 당해도 싸?’¹²³⁾

양심이 매우 굳은 사람의 초자아는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동시에 이드로 하여금 만족을 얻게 해줄 수도 있다.¹²⁴⁾ 즉, 소회는 도덕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이드의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심리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23) 이금이, 앞의 책, p.105.

124)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41.

⑩에서 소희는 ⑨에서 행했던 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소장님을 향해 ‘내게 설명하셨을 거야’하며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슈퍼에고적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

⑪의 소희는 힘들어하는 미르를 모른척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

⑰에서 소희는 자신의 마음을 비밀 일기장이 아닌 외부에 드러낸다.

“(……) 잘 몰랐는데 저번에 미르가 자기 아빠 재혼한다고 막 울 때 깨달았어. 엄마가 그렇지 않은 건 엄마하고 추억이 없기 때문이란 걸 말이야. 난 그 때 미르가 부러웠어. 미르가 가진 추억이 말이야.”¹²⁵⁾

비로소, 소희는 현실을 인식하며 객관적 세계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한다. 이는 지각, 분별의 논리적 사고에 의한 예고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⑳에서 소희는 안정된 예고적 성향을 보인다.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작은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이는 미르, 바우의 아픔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 지각, 기억, 사고 등 심리작용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희의 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슈퍼에고적 성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슈퍼에고적 성격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3) 바우

바우는 선택적 함구증에 걸렸다. 어머니를 잃으면서 말문을 닫았던 바우는 말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 어렸을 적, 본능 충족이 되지 않는 좌절감에 자신의 입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바우 안에는 비현실적인 예고적 성향이 지배하고 있다. 미르에게 말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다. 그러던 중, 바우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말문을 연다. 말문을 연 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능적 행위의 결과이다. 내면에는 본능적 욕구가 용솨음치고 있으나 그것을 예고가 강하게 억제하고 있다. 바우는 믿었던 아버지에게 대한 실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성격의 역동을 맞는다.

바우는 소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자기 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려던 가치관에서 세상을 보는 또 다른 통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성향의 변모는 바우를 선택적 함구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예고적 성격으로 나아가게 한다.

125) 이금이, 앞의 책, p.185.

<그림 13> ‘바우’의 행동 특성

슈퍼에고							
에고	●	●	●	●			●
이드					●	●	
최소사건	⑫	⑬	⑭	⑮	⑯	⑰	㉑

⑫에서 바우는 자신이 왜 말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실감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던 엄마의 죽음이 한순간에 날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내 그림을 보고 무슨 그림이 이렇냐고 하는 순간 나는 더럭 겁이 났어요. 엄마가 없으니 이 세상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나는 그 때 아버지도, 소희 누나도, 소희 누나네 할머니도 하나의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세상과 만나는 문이나 마찬가지로였어요. 나는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닫았던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 이제 아무한테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¹²⁶⁾

바우가 선택적 함구증에 걸린 직접적인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바우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그림을 아버지 앞에 내놓았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자신의 그림에 대해 항상 칭찬해 주고 공감해 주던 어머니가 이제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때, 바우는 말문을 닫는 ‘퇴행’이라는 기제를 통해 자아를 방어한다.

⑬의 바우는 미르를 본 순간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그 관심의 행동은 자아의 억제력으로 인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⑭에서도 바우의 자아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의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르에게도 ‘너의 아빠 살아 계시잖아. 네 아빠의 늙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다.

⑮에서 바우는 불안한 심리를 그림 그리는 것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바우는 ‘자신이 그런 그림이 마음에 들 때’ 행복하다고 말한다. 엄마를 잃은 슬픈 심리를 그림 그리는 것으로 대상을 전이시키는 것은 에고의 긍정적인 활동이다.

⑯에서 바우는 말문을 연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바우에게, 자아의 억제력보다 본능의 추진력을 더 크게 발휘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 따라서 바우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다.

126) 이금이, 앞의 책, p.141.

“꽃 예쁘지? 사실은 어제가 우리 엄마 생신이었거든. 외삼촌이랑 외숙모랑 케이크를 사 가지고 오셨는데 조금밖에 안 먹었어. 그래서 케이크 같이 먹으려고 소희보고 너랑 같이 오라고 한 거야.”

미르가 바우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바우는 미르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

“니네 아빠한테 물어봤어?”

바우 입에서 자기고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바우는 자신이 미르에게 말을 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¹²⁷⁾

바우의 말문이 열린 것은 본능적 욕구에 의한 이드적 성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⑰의 바우는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우의 이드적 성향은 “난 아버지가 딴 사람이랑 결혼하면 집을 나가 버릴 거야.”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현실적 사고를 방해하고 있다.

⑳에서 바우는 안정적인 예고적 성향을 보인다. 떠나는 소희를 위해 그림을 그려주고, ‘나 이제부터 누나라고 안부를 거야. 똑같이 중학생 될 건데’라며 자신의 의지를 당당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미르와 소희의 아픔이 자신과 동일시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바우의 예고가 선택한 억압은 비현실적인 방어기제임에 틀림없다. 이 방어기제는 성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억압이 이드의 본능적 충동에 췌기를 막아 줌으로 해서 아직 미숙한 상태의 예고는 이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¹²⁸⁾ 예고의 힘을 길러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억압의 역할은 필요하다. 예고를 충분히 길러내는 것이 인격발달의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바우의 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예고적 행동 특성에 이드 성향이 조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를 지키려는 예고적 성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예고적 성격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8개의 작품 속에 내재한 12명의 인물을 분석한 결과, 예고적 성격이 7명, 슈퍼예고적 성격이 2명, 이드+ 예고적 성격이 1명, 예고+ 슈퍼예고적 성격이 2명으로 드러났다. 이제 이런 인물들의 행동과 성격 유형과의 연관성, 그리고 동화 인물이 갖는 특징과 인물의 유형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27) 이금이, 앞의 책, p.170.

128)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90.

3. 인물의 성격 유형과 그 의미

가. 인물의 행동과 성격 유형의 관계

사람의 행동은 자극에 의해 반응을 보이며 같은 자극도 주체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자극과 반응 사이에 유기체라는 매개변수를 심리학자들은 강조한다. 동일한 자극도 그것을 수용하는 면에서 반응하는 사람의 성질에 따라 제한되거나 수정하여 반응한다. 이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성격'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인물의 성격이 행동을 제한하고 수정할 수 있다면, 행동 또한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동이란 유인(誘因, incentive)이나 동인(動因, drive) 즉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반응을 가리킨다. 즉 그것이 상대에 의하여 관찰될 수 있는 또는, 체내에서만 일어나 관찰될 수 없는 간에 이와 같은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행동이라고 본다.¹²⁹⁾ 따라서 지각과 학습, 사고, 상상, 감정 등의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힘든 요소까지 행동의 개념에 포함한다고 할 때, 행동이란 성격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인성을 바르게 함양시키고자 노력한다.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지적과 훈계 등을 통해서 바른 성격의 주체자로 양육하고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격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경험과 행동을 반복해 왔는가의 문제는 성격형성과 깊이 관계된다.¹³⁰⁾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성격 요인은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는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성질이며 이차적 욕구이기도 하다. 반면, 이차적 욕구가 충족되고 경험과 학습의 결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이차적 욕구라고 한다. 청소년기의 성격 변화 요인은 당연히 이차적 욕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 각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동 특성과 성격유형은 <표 3>과 같다. 이 표가 보여주는 바는 동화 속 인물들이 이차적 욕구의 경험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적, 외적 자극과 인물들의 행동 특성에 따라 성격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읽어낼 수 있다. 경험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와 같은 경험에 의해서 학습효과가 나타난다.

한 행동을 주체적 변인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경험의 재생적 적용이거나 피드백(feedback)에 의한 선택적 수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¹³¹⁾ 어떤 인물의 행동이 어떤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도 그와 같은 일에 부딪쳐도 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129) 이상노, 앞의 책, p.15.

130) 이상노, 앞의 책, p.16.

131) 이상노, 앞의 책, p.23.

<표 3> 인물의 행동 특성과 성격 유형

번호	인물	작품	행동 특성	성격 유형
1	수만	고구마	슬픔, 부끄러움, 의지	에고+ 슈퍼에고
2	기수		믿음, 의심, 이해, 용서	에고
3	바우	나비를 잡는 아버지	질투, 자존심, 이해, 화해	에고
4	문기	하늘은 맑건만	거짓, 죄책감, 도둑질, 무기력, 양심, 후회, 고백, 화해	슈퍼에고
5	성태	육촌형	회피, 두려움, 난폭, 용기, 우정	에고
6	근태		근면, 독립심, 침착, 협동, 이상	에고+ 슈퍼에고
7	몽실	몽실언니	침착함, 근면, 지혜, 두려움, 인내, 예의, 용기	에고
8	명혜	명혜	의지, 이해심, 감사, 화해	에고
9	승권	턱수염	회피, 소중함, 반항, 난폭함, 사랑, 이해심, 화해	에고
10	미르	너도 하늘말나리아	불만, 불평, 괴로움, 우정, 이해	이드+ 에고
11	소희		근면, 이해, 두려움, 외로움, 이해	슈퍼에고
12	바우		좌절, 회피, 의심, 질투, 이해, 용기	에고

동화 <명혜>에서 ‘명혜’는 여러 어려운 상황이 닥쳤지만 에고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루었고 가족 간의 화해도 이끌어냈다. 따라서 ‘명혜’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그 전과 다름없는 행동을 취하면서 자신의 에고적 성격을 유지하고 성격의 안정을 취한 것이 그 예가 된다.

동화 속 인물들은 그 성격이 비록 부정적이고 반항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건과 갈등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반복성은 성격 형성의 요인이 된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드러난 동화 속 인물이 갖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 속 인물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나’를 아는 것은 내 삶만큼이나 중요하다. 가정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학교와 사회 속에서, 넓게는 국가와 세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작업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체성을 찾는 것은 성장단계에 들어서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도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다. 동화 속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이유가 ‘정체성 찾기’에서 출발한다. 자신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수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얻으려는 것 또한 자신의 정체성이다. 동화 속 인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본질과 가치의 존재에 대해 끝없이 묻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려운 환경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인물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강한 추진력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둘째, 동화 속 인물들은 자신에게 직면한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다.

성격 발달은 갈등의 연속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생리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해 갈등을 겪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자아실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로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등과의 대결에 불안감을 느끼고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태세를 취한다면, 정상적인 인격 발달을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동화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에게 직면한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다. 내적인 갈등이든 외적인 갈등이든 그 현실에 당당히 맞선다. 가정과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갈등과의 정면 승부는 자아의 건강한 발달을 이끄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동화 속 인물들은 갈등해결에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한다.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과 이웃, 사회, 자연 등 인간이 유기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동화 속 인물들은 부모·형제·친구·이웃 등과의 갈등에서 동일시, 전이, 승화 등의 긍정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갈등 해결의 긍정적인 방법은 자아성찰과 더불어 개인과 사회,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해 주고, 건강한 개인의 삶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넷째, 동화 속 인물은 자아의 확장을 이룬다.

자아는 자기 신체 경험에서 시작하여 세상의 많은 경험으로 이동하면서 성장한다. 자아는 이 경험을 통해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 목적과 인류의 문화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자아의 확장이다. 자아가 확장되면 될수록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세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동화 속 인물들은 성공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자아의 확장을 이룬다. 주변인물과의 갈등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배우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자아실현의 방법도 배운다.

다섯째, 동화 속 인물들은 정서발달의 성숙을 이룬다.

동화 속 인물들은 본능의 욕구 충족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의 잘못된 가치관을 수정함으

로써 현실 적응능력을 키워 나간다. 이러한 적응능력은 키우면 키울수록 자아는 발달하고, 발달된 자아로 인해 어떤 역경에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동화 속 인물들이 겪는 경험은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격의 발달도 가져온다. 다음 장에서는 각 인물의 행동 특성을 통해 추출된 성격 유형을 정리하고 그 유형이 주는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나. 인물의 유형적 의미

동화 속의 인물들은 자신의 처한 현실과의 갈등요소로 인해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다가 자기 나름의 방식과 행동으로 해결한다. 이때 주인공이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갈등 해소 측면도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에 따라 성격의 역동과 발달 단계의 차이성이 나타나게 된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격 유형의 요소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분별된다. 그러나 모든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성격적 특성은 작품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한 가지의 특성으로만 일관하지는 않는다. 사건과 행동에 따라 다양한 갈등 양상이 제기되면서 인물들은 본능원칙과 현실원칙, 그리고 도덕원칙 등을 다양하게 행동에 실어 내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격적 요인들이 단형적인 모습에 머물지 않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과정마다 중요한 사건마다 퍼스낼리티의 속성을 체크한 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성격유형을 밝혀냄으로써, 성격의 지나친 일반화와 객관화가 몰고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1학년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동화 속 인물의 성격의 유형과 그 양상은 단순형보다는 이드+에고, 이드+슈퍼에고, 에고+슈퍼에고, 이드+에고+슈퍼에고 등의 복합형 형태가 많았다.

Ⅲ-2에서 분석한 결과 이드+에고적 성격, 에고적 성격, 에고+슈퍼에고적 성격, 슈퍼에고적 성격 등 4가지 유형만이 추출되었다. 에고적 성격에는 7명, 슈퍼에고적 성격은 2명, 이드+에고적 성격은 1명, 에고+슈퍼에고적 성격이 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동화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이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에고적 성격에 편재되어있다는 점을 지시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인성과 성격 발달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과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결과는 보다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갈등구조, 그리고 다양한 성격과 조화로운 인간상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과 정서 및 인성발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문학교육적 지침과도 거리가 있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프로이트의 성격 유형과 작중인물을 모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프로이트의 성격 유형과 인물 분석 결과

번호	성격의 유형	인물 분석
I 형	이드	
II 형	에고	기수, 바우(나비를 잡는 아버지), 성태, 몽실, 명혜, 승권, 바우(너도 하늘말나리아)
III형	슈퍼에고	문기, 소희
IV형	이드+ 에고	미르
V 형	이드+ 슈퍼에고	
VI형	에고+ 슈퍼에고	수만, 근태
VII형	이드+ 에고+ 슈퍼에고	

<표 4>에 의하면, I 형의 이드적 성격과 V 형의 이드+ 슈퍼에고적 성격, VII형의 이드+ 에고+ 슈퍼에고적 성격은 분석 대상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동화를 선정하여 수록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작중인물의 다양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러한 지적은 다양한 성격과 인물들을 보여주는 동화가 다채롭게 수록될수록 청소년 독자들의 조화로운 인성계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제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는 II형의 에고적 성격과 III형의 슈퍼에고적 성격, IV형의 이드+ 에고적 성격, VI형의 에고+ 슈퍼에고적 성격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1) II형 - 에고형

에고적 성향은 이드와 환경 사이의 중개자로서 이드의 욕구 충족 에너지를 쉽게 억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구마>의 ‘기수’, <나비를 잡는 아버지>의 ‘바우’, <육촌형>의 ‘성태’, <몽실언니>의 ‘몽실’, <명혜>의 ‘명혜’, <턱수염>의 ‘승권’, <너도 하늘말나리아>의 ‘바우’가 대표적인 에고적 성격의 인물이다. 이 인물들은 자신의 본능을 억압하며 자아상을 추구하고 있다.

현실원리의 지배를 받는 에고적 성격은 이드와 슈퍼에고와의 타협을 억제한다. ‘몽실’과 ‘명혜’, <너도 하늘말나리아>의 ‘바우’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몽실’과 ‘명혜’, ‘바우’는 에고적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각기 그 의미가 다르다. ‘몽실’과 ‘명혜’가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했다면 ‘바우’는 부정적으로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로이트는 에고가 주로 외부세계와의 상호관계의 산물이라고는 해도, 그 발달방향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누구나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천부적으로 타고날 수 있다¹³²⁾고 말한다. ‘몽실’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가는 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잠재력 때문이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도, 사회의 도덕적 규제를 배우는 것도 유전적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몽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갈등에 대해 어떻게 제거하며 성격을 형성해 나갈지 추측할 수 있다. ‘명혜’도 옛날, 여자의 몸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 유학길에 오르는 목표를, 목표지향적 동일시를 통해 이뤄냈다. ‘명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갈등도, 욕구가 강하면 그 추진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한 예고적 성향을 보여준다.

반면, ‘바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예고가 형성되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아를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선택적 함구증을 앓는다. 또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의 내면을 닫고 더욱 불안해한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의 아픔과 동일시되면서 ‘바우’의 닫혔던 내면이 열리고 새로운 긍정적인 자아로 이행하게 된다.

‘몽실’과 ‘명혜’ ‘바우’의 공통점은 자신의 예고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있다. 본시 예고는 본능적 에너지를 강하게 통제시키면서 역동적인 면을 보인다. 이때, 예고는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나 집착 같은 대상추진력 현상이 많이 일어나 지각과 기억, 사고와 같은 심리작용이 더욱 발달하여 세분화된다.

‘기수’, <나비를 잡는 아버지>의 ‘바우’, ‘성태’, ‘승권’은 안정된 예고적 성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단계에 있다. 이드 속의 정신 에너지가 예고 쪽으로 상당히 유입되기는 했지만 이드적 행동을 자제시킬 만큼 독자적인 체계로 예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수’, ‘바우’, ‘성태’, ‘승권’은 작품 속에서 본능적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본능적 행동은 동일시를 통해 제거되고, 또 하나의 학습으로 기억되어 안정된 자아를 형성하는 경험으로 자리잡는다.

<나비를 잡는 아버지>의 ‘바우’는 상급학교 진학의 좌절을 그림 그리는 것으로 전이시켰고, 그 그림이 찢겨지고 불태워진 것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를 경험한다. 좌절감은 곧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결심까지 이어지지만, 아버지와 동일시를 통해 제거된다. ‘승권’도 돌발적인 행동을 일으킨다. 자신의 행운의 징표가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자 주먹부터 나가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 또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동시에 아버지와 동일시를 이루면서 이드적 에너지를 예고 쪽으로 유입시키는 경험을 한다. ‘성태’도 자신들의 사회적 제약을 예고의 논리적 판단으로 극복하며 한층 더 안정된 예고적 성격으로 이행한다. 즉, 불안과 좌절감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동일시, 승화 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고적 성격은 이드로의 정신 에너지를 얼마나 끄집어내어 본능 충족보다는 지각과 학습, 판단 등의 심리작용을 발달시키는가와 관련된다. ‘몽실’, ‘명혜’, <너도 하늘

132) S.프로이트·C.S홀·R.오스본, 앞의 책, p.121.

말나리아>의 ‘바우’는 에고가 정신 에너지를 독점 사용하고 있는 반면, <나비를 잡는 아버지>의 ‘바우’, ‘성태’, ‘승권’은 이드의 정신에너지를 에고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

2) III형 - 슈퍼에고형

프로이트는 사람의 성격은 이드에서 에고로, 에고에서 슈퍼에고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정상적인 사람은 에고가 정신 에너지를 대부분 독점하지만 에너지 변화의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슈퍼에고적 성격의 정신 에너지는 에고에서 슈퍼에고의 영역에 기울어져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슈퍼에고형 인물로는 <하늘은 맑건만>의 ‘문기’, <너도 하늘말나리아>의 ‘소희’이다.

슈퍼에고적 성격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문기’는 양심에 어긋난 행동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슈퍼에고는 본능적 쾌락추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억압 작용을 한다. ‘문기’는 성장 가운데 자신의 본능을 계속적으로 억압했기 때문에 ‘도둑질’, ‘거짓말’이라는 양심에 어긋난 행동에 그의 에고는 위축되어 있다. ‘문기’의 정신 에너지는 슈퍼에고의 영역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드와 에고의 약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기’는 양심의 강요로 인해 비합리적인 사고로 이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선다. 에고로 유입된 에너지로 말미암아 ‘고백’이라는 긍정적인 도구를 통해 건전한 자아상으로 발전된다.

성격의 안정성이 이뤄졌다는 것은 성격의 발현이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될 여지가 충분함을 뜻한다. ‘수만’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 닥쳐도 그 전과 별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다. 성격 안정성이 이뤄졌다고 해서, 좌절감이나 불안, 기타 긴장의 요소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긴장과 좌절감을 처리하는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 안정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소희’도 ‘수만’과 비슷한 경우이다.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라난 소희는 도덕적 양심이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었고, 특별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친구와의 동일시를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아이상의 슈퍼에고적 성격으로 발전한다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슈퍼에고적 특성이 그렇듯, ‘문기’와 ‘소희’는 부모 또는 그 외 권위체에 의해 도덕적 내재화를 이뤄냈고, 그 내재화로 ‘죄책감’, ‘부끄러움’의 심리적 작용이 어느 인물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인물이다. 슈퍼에고의 목적은 본능의 욕구를 억제, 조절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슈퍼에고가 에고에서 생겨났고, 에고는 이드에서 생겨났다고 할 때, 슈퍼에고형의 인물은 이들 상호 작용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3) IV형 - 이드 + 에고형

이드와 에고의 양면적 성향을 주로 보이는 인물은 본능의 욕구 충족을 이루려는 추진력이 현실적 욕구와 동등하게 작용하면서 건전한 에고로 이행하는 면을 보인다. <너도 하늘말나리아>의 ‘미르’가 바로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

이드의 본능적 욕구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기 시작하는 유전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 점차로 제거되기 시작한다. 이드에서 본능적인 요소가 사라지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 사고, 기억 등 에고가 싹트기 시작하는데 프로이트는 정신 에너지가 에고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본능적 에너지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욕구가 나오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시키지 못할 경우, 에고나 슈퍼에고 수준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본능적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다. 성장하면서 본능의 주관적 요소와 현실의 객관적 요소를 동일시시키는 즉, 에고의 이차적 과정을 이루는 경험이 얼마만큼 있었느냐에 따라 이드의 본능적 행동의 횟수가 좌우된다.

이차적 과정의 경험이 적을수록 이드에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어, 본능적 충동이 자주 일어난다. ‘미르’는 부모가 이혼하기 전 자신은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 그러나 아빠와 갑자기 떨어져 산다는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본능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엄마에게 분풀이를 하게 한다. 이러한 본능적 행동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와 동일시를 이루며 긍정적인 에고적 성격으로 이행하는 면을 보인다.

작품 속에 펼쳐지는 ‘미르’의 이드적 성격은 현실의 갈등을 에고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로 인해, 현실을 인식하여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는 계기가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에만 투입되던 에너지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을 통해 또 하나의 동일시를 이루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고 능력도 길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드와 에고와의 갈등은 곧 또 다른 경험을 야기 시키며 경험을 통해 역동하는 성격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미르’는 본능적 에너지를 상당히 에고 쪽으로 유입시키면서 본능적 욕구가 점점 줄어들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에고의 능력이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VI형 - 에고+ 슈퍼에고형

에고+슈퍼에고적 성격은 현실의 원리를 따르면서 사회 도덕적 규제도 인식한다. 이드의 에너지가 축소되고, 에고와 슈퍼에고로 에너지가 유입되어 있다. 이것은 불안과 좌절감을 능숙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된다. 동화의 인물로는 <고구마>의 ‘수만’, <육촌형>의 ‘근태’이다.

사람의 성격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언제든 닦칠 수 있는 외부적 요소로부터 불안감과 좌절감을 능숙한 숨씨로 제거하는 학습을 익혀야 한다. ‘수만’은 자신의 가정 형편이 갑자기 기울어지자 그 전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 그는 말이 없으며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 그

러나 반항적인 기질은 보이지 않고 사회의 틀을 유지하며 본능의 욕구를 억제시키고 있다. '근태'는 슈퍼에고적 성격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제거한다. 도덕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선과 악의 측면에서 괴로워하던 에고의 현실로부터 벗어난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에고의 논리적 사고에 의해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수만'과 '근태'가 보이고 있는 에고+슈퍼에고의 성격으로 볼 때, 본능적 요소는 성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어느 정도 경험과 훈련으로 축적된 에고의 에너지로 인해 본능으로의 길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물론, 본능적 요소를 내비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성격 변화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에고+슈퍼에고적 성격은 성격 역동의 단계를 지나 발달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드의 추진력과 에고의 억제력이 안정을 찾으면서 불안과 좌절감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 것이다.

에고+슈퍼에고적 성격은 성격 발달 단계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자극을 받지 못할 미미한 상태도 아닌 그런 환경에서 에고와 슈퍼에고는 약간의 에너지만 본능에 내어주고 성격 발달을 이룬다. 성격 발달 단계가 중요한 것은 환경으로부터 자극이 증가할 때, 비현실적으로 불안을 제거하는 자아의 방어기제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인간상과 바람직한 인간상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 할 때,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 작품은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화 속 인물들은 프로이트의 7가지 성격유형 중 4가지 유형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II형인 에고적 성격에만 편중되어 있는 결과를 통해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동화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작중인물의 성격 유형을 분석해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23종 국어 교과서에 실린 8편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12명의 인물을 분석하였다. 작중인물의 다양한 행동 특성 속에 나타난 성격 요소 중에서 지배적인 성향을 포착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건과 행동들을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3가지 성격 성향과 연결시켜 해석한 뒤, 전체 작품을 이끄는 지배적인 성향을 추출하여 성격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식은 작중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작품 속의 중요한 사건이나 행동과 연계시켜 과정별로 추적하여 총체적으로 수렴하는데 특징이 있다. 작중인물의 성격 요인은 모든 행동과 사건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과정별로 분석한 성격적 특성은 전체 이야기 속에서 지배적인 성향을 추적함으로써 보편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현실을 인식하고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는 에고적 성격이 7명, 사회의 도덕성을 지키려는 슈퍼에고적 성격이 2명,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려는 속성과 그것을 현실의 올바른 판단과 연결시켜 역동적 단계를 밟고 있는 이드+에고적 성격이 1명, 본능에 의지하기 보다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자신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이루려는 에고+슈퍼에고적 성격이 2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이트의 3가지 퍼스널리티 요인을 중심으로 조합해낼 수 있는 7가지 성격 유형 중 4가지 유형만이 검출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1학년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동화텍스트의 인물들의 성향이 주로 에고적 성격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다양한 성격을 지닌 동화들이 수록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정체성과 인성 발달의 민감기를 살고 있는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인간상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기회를 줄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것은 곧 모방 욕구가 강한 중학생들에게 바람직하고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행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가 인물제시의 측면에서 편재성을 띠고 있어서 균형 잡힌 인간상을 연상하게 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독서 후 변증법적 인식작용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상이나 성격유형을 유추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양한 성격을 지닌 인물들의 행동 특성 가운데서 연상해내는 것이 한층 보편성과 총체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물 성격유형의 편재성은 문제

로 지적된다.

그밖에도 중학교 1학년 『국어』의 동화작품에 나타난 인물 성격의 편재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정하여 수록 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예컨대, 생활동화 뿐만 아니라 우화, 공상동화 등 다양한 유형의 작품을 수록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주인공 인물의 성비도 고려해야 한다. 분석 대상 인물 12명 중 여자는 4명, 남자는 8명이다.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균형 잡힌 남녀의 인물 수록은 다양한 인간상 제시라는 측면에서도 요구된다.

셋째, 장편동화의 부분 게재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독서 습관을 키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작품의 부분 게재는 독서물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습관 형성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넷째, 통시적 측면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수록되지 않은 것도 지적의 대상이다. 작가의 가치관에 따라 인물의 성격과 행동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다양한 작가의 작품 수록은 다양한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어 교과서에 동일 비중의 동화작품을 의무적으로 수록하여 동화 교육의 부재 현상을 막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중학교 23종 1학년 국어 교과서 중 동화작품은 11개 출판사에서 간행한 교과서에만 실려 있다. 이는 동화의 교육적 활용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중학교 청소년들의 인성과 성격발달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2009개정교육과정 중 중학교 2,3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린 동화작품을 다루지 못한 한계성을 안고 있다. 2,3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린 동화작품을 함께 연구할 때 보다 보편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음의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었음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1. 기본 텍스트

- 김형철 외 18인, 『국어 1학년-2학기』, 교학사, 2010.
노미숙 외 10인, 『국어 1학년-2학기』, 천재교육, 2010.
박영목 외 12인, 『국어 1학년-1학기』, 천재교육, 2010.
방민호 외 12인, 『국어 1학년-1학기』, 지학사, 2010.
오세영 외 9인, 『국어 1학년-1학기』, 해냄에듀, 2010.
윤여탁 외 17인, 『국어 1학년-1학기』, 미래엔컬처그룹, 2010.
이삼형 외 8인, 『국어 1학년-1학기』, 도서출판 디딤돌, 2010.
권정생, 『몽실언니』, 창비, 2007.
박소연, 『명혜』, 창비, 2007.
이금이, 『너도 하늘말나리아』, 푸른책들, 2007.
임홍은, 정우해, 현덕 외 1인, 『물따총』, 겨레아동문학연구회, 보리, 1999.

2. 단행본

- 강봉규, 『발달 심리학』, 정훈출판사, 1992.
강소천, 『아동문학』, 배영사, 1962.
구인환 외 4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6.
구인환, 『소설 창작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김자연, 『한국 동화문학 연구, 한국 동화의 환상성 연구-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서문당, 2000.
마리아 니콜라예바,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조희숙 외 4인 역, 교문사, 2009.
민경환, 『성격심리학』, 법문사, 2002.
박춘식, 『한국 아동문학의 장르에 관한 연구』, 집문당, 1983.
비고츠키, 『아동의 상상력과 창조』, 창지사, 1999.
원종찬, 『동화와 어린이』, 창작과 비평사, 2004.
이규정, 『현대소설의 이론과 기법』, 박이정, 1998.
이상노, 『성격과 행동의 지도』, 중앙적성출판사, 1979.
이오덕, 『어린이를 살리는 문학』, 청년사, 2008.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소년한길, 2001.

9É >ö 7š&/-ŽG⁻r *¶ ù 3r-Ž%ŠX⁻ _ZU
9Ú2HWB9Ú 66 | 9w5B G⁻ù 6< 3 6VWU
9Ú& 7š&/-ŽG⁻G 9w*¶ ù 669&ŽH³ 6VWU
9úHr4r 7š&/-ŽG⁻*¶ ù 6< 3 6X⁻ ` ^U
:k G⁴o 3â3z G[†] 4v*¶ ù 6*z%7öEf/Ö ŠX⁻ _WU
zGZ² 9É G 4H-G 8z4ú/N 6GZ² 9É 6B G⁻6Éz ù 6z8W@8C6v8V 6X⁻ ` \U
G²Ä? 3â#š r .r 9&6? 3â#š 6B G⁻ù 6 9wRG³ 6VWU
H 5 IÂ G& &/3f G& 5 IÂ 7š&/9@G 3 { G %B 6< 3 6X⁻ ` ` U

Z6⁻9Z#0Ž

k 5 9Ú6ö? 3â#š † G/P7ž9@G! 9wWGG@GFA ÷ 6ÉH⁸B9æ%⁻! 6%6⁻9&6s3 G⁻9Z#0Ž 6
VWU

SHr.k 6 &/H^a 6ú+É¶8&G/G² 6FA ÷ 6 ;R! 9w%⁻! G 9w%6⁻9&6s3 G⁻9Z#0Ž 6VWU

â:k 4o 6 &/H^a! : 8&G C "ò 6 %8† 6Ú3s ÷ 6ÉH⁸B9æ%⁻! 6%6⁻9&6s3 G⁻9Z#0Ž 6X⁻ ` ^U

- R: 6 Ä.RG⁻! 6/H^a G : 6Ú3s 6FA ÷ 6 Ä%⁻! G 9w%6⁻9&6s3 G⁻9Z#0Ž 6X⁻ ` \U

-.N7¶ 6 :Z)i &/H⁸&6%⁻6B@5B G⁻W6És8&G/G² 6FA ÷ 6 3s%⁻! 6%6⁻9&6s3 G⁻9Z
#0Ž 6X⁻ ` _U

-3 9 6 7š&/-ŽG⁹@6ú+É- 6y8 ÷ 6²Ä7š&/? 3â#š-ŽG⁻G^Hâ6 9 G⁻4v%^HâG F²-Ž 6VWU

-8V: 6 7š&/-ŽG⁹@6ú+É- 6 4n3† ÷ 6< ;R! 9w%6⁻#0Ž<' ù:r Z|<' 6X⁻ ` YU

-:k 3v 6ö;gG⁻! 6 Ä8 ù ; R3r8&6n³ &r 6/H^a 6FA ÷ 6†568B9æ%⁻! G 9w%6⁻9&6s3
G⁻9Z#0Ž 6VWU

-:r G² 6 m⁶6s9@G†y Hk†¶8&G/G² 6FA ÷ 6r9 | 9w%⁻! 60Ž<' 6 X|<' 6X⁻ _ZU

-HZk 6ö N, &/H^a 6G9úÍ-' 9@GZHk† 6FA 6GZB9É2 6< 6N, 6 6i.N% ;î :W62V8&3r G
÷ 6ÉH⁸B9æ%⁻! 6%6⁻9&6s3 G⁻9Z#0Ž 6X⁻ ` _U

+@R9&6?^GG⁻! 6ŽG⁻! : 6Ú3s 6FA ÷ 6*z%⁻! G 9w%6⁻9&6s3 G⁻9Z#0Ž 6X⁻ ` ZU

.k 3v' 6ö 3†9ú3â3z9š 6 G² 6Í3†! 9wG• 7ž 6FA ÷ 6y"p%⁻! G! 9w%6⁻9&6s3 G⁻9Z#0Ž 6
VWU

.k:Ú9 6ö C†úCöÉGZÖ9ç 6ö 8 , 52^ ù 6ö 3â#š52^ ù 6ö? #š52^ ù 8&G C "ò 6/5B÷ 6ö
*z%⁻! 6%6⁻9&6s3 G⁻9Z#0Ž 6VWU

3† 4n 6? 3â#š 6ŽG⁻R 6ŽG⁻! 9w÷ 6²Ä! 98%⁻! 6%6⁻9&6s3 G⁻9Z#0Ž 6VWU

7ž3†4n 6ö HZ%8â3z9@G 4n• .ë R 6²3 Hk53TcN, < & .ë 6š 6g5B' *2 T÷ 6 ;R%⁻! G† *3
#Ö's 6 X' 6X⁻ ` ` U

- 엄숙용, 「황순원 『소나기』의 기호학적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원종찬, 「한국 동화 장르에 관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30호, 2006.
- 유미수,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학습목표 성취도를 중심으로 본 중학교 소설 교재의 적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윤미원, 「교과서 창작동화에 나오는 인물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지호, 「환상동화의 장르적 성격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8집, 2004.
- 인혜리 · 이성은,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학 활동이 아동의 상상 기능 및 성향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연구』 제8권 2호, 2004.
- 임연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화의 인물 분석」,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장정희, 「소과 방정환의 장르 구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남숙, 「아동문학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 조미연, 「초등학교 동화 교재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최경희, 「동화의 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효선,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동화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함인자,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게재된 성장소설의 인식과 그 문학교육 방안」,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황선미, 「동화 창작방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Abstract>

A Study of the Characters' Personality Types
Shown in Fairy Tales: Based on 1st middle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

YI, YON JOO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 Soo**

Adolescents need someone to lead their lives and have a strong desire to want to identify with that person. Fairy tales are one of the important medium to meet those needs to imitate. They are pedagogically valued to help teenagers to build their positive viewpoints for the real world based on purity as well as truthfulness. They are pedagogically valued to help teenagers to build their positive viewpoints for the real world based on purity as well as truthfulness. Characters in the fairy tales become models for the teens by suggesting how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Therefore, fairy tales ma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eens who go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ir identities. Moreover, fairy tales have an importance because they can be used as a chance for adolescents who are at the stage of forming their personality to experience at second hand. That is the reason why the researcher study the personality types of the fairy tales characters o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of 1st grade in Middle school(which reflects the 2009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For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referred to Sigmund Freud's personality theory as a tool for analyzing the personality types of the characters. Eight fairy tale characters' personalities were classified into 3 types with the criterion of id, ego and super-ego personality.

The results shows that of total 12 characters, there are 7 characters of ego personality, 2 of super-ego, 1 of id+ego and 2 of ego and id combined.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re is lack of full consideration of characters' personalities.

Besides, there are several arguable aspects including an imbalance of sexes of characters in the stories, inconsiderate partial extracts from the long stories, lack of selections from various writers throughout the history and missing fairy tales in the 12 out of 23 officially confirmed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Middle school 1st graders.

This research can be a useful reference as to consideration of the fairy tale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second and third grades in Middle school in the future.